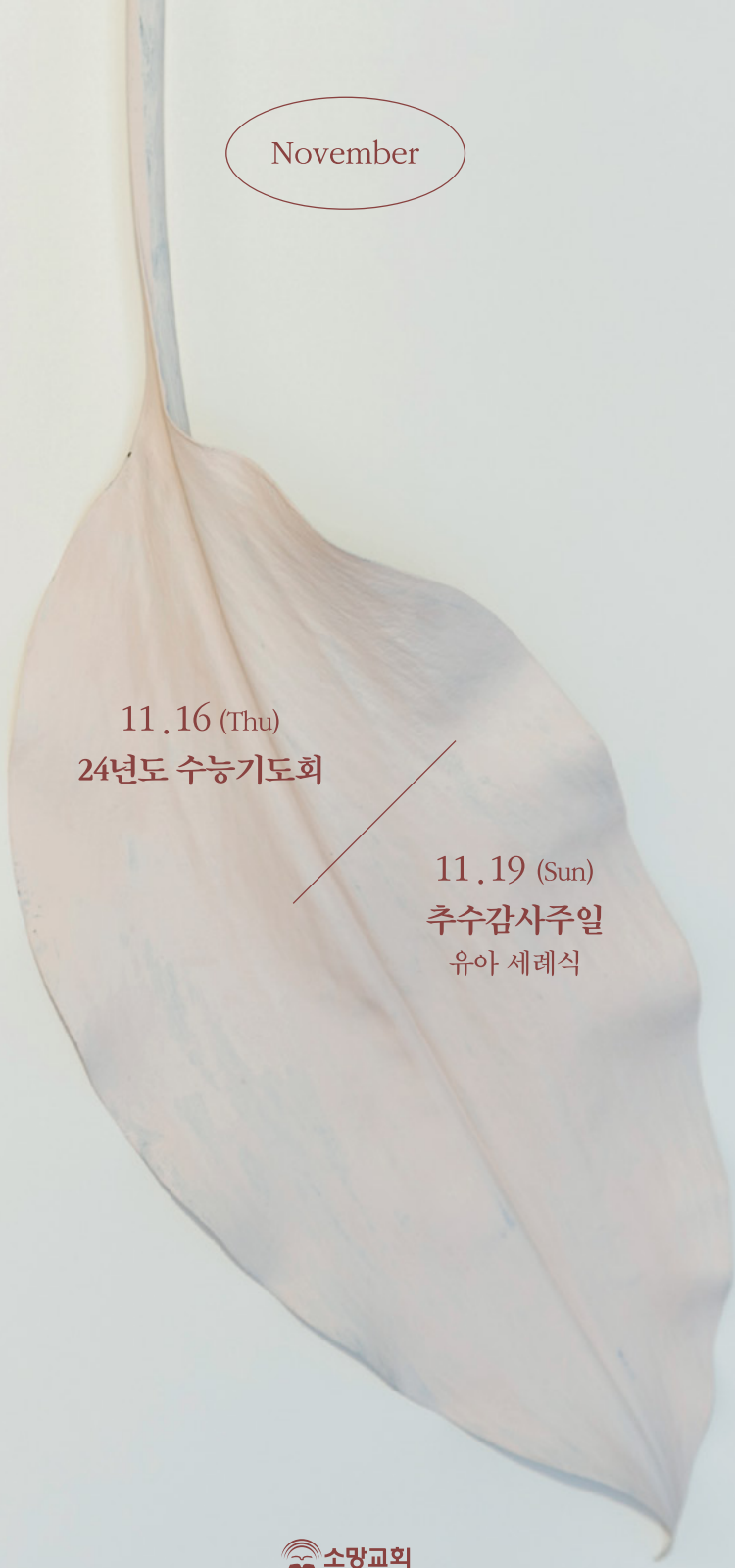






November

11.16 (Thu)
24년도 수능기도회

11.19 (Sun)
추수감사주일
유아 세례식

CONTENTS

November 2023

하늘을 여는 기도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2
깊어지는 영성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 김경진	4
묵상에 붙임	공화를 구하는 기도 헨리 나우웬	6

W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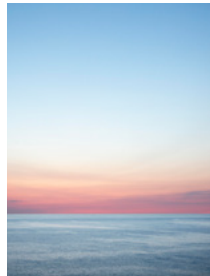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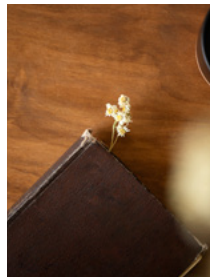
소망말씀나눔 활용법		10
말씀 개관		12
11월 본문	역대하·욥기	16
	1주(11/6) 2주(11/13) 3주(11/20) 4주(11/27)	

FAITH

땅끝에서 온 편지	함께하는 공동체 안OO·우OO	40
소망사랑방	내리는 비에서 발견한 사랑 전찬희	82
전도서산책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순기	124
공간공감	대전제일감리교회 홍성찬	166
이달의 기도	날마다 주의 은혜로	192

COMMUNICATION

문화읽기	<화란>을 통해 본 흑암 중에 깨닫게 되는 주님의 빛 황영미	194
소망마당	돌이켜 보니 교회학교	198
그림묵상	예수님, 지금 여기에 이호연	204
예배자의 길	11월 우리의 고백 허춘남·황주은·박미아	206
가정예배 오답노트	부모는 자녀 인생의 정비사가 아니라 정원사입니다 신형섭	210
돌봄의 창	질책을 은혜로 바꿔 주신 하나님 이종유	214
소망뉴스		218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시는 주님이시기에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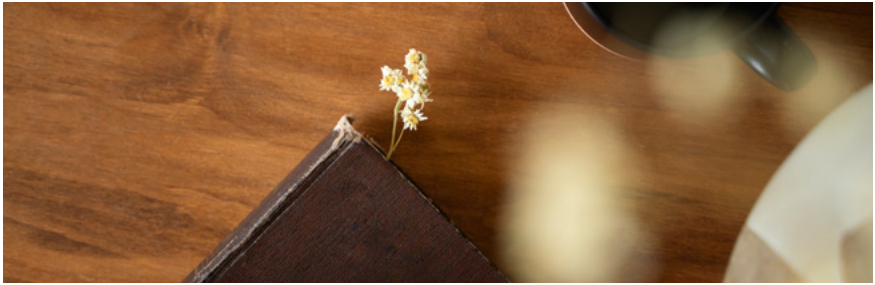
글 김영진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스스로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는 부러운 인생이 참 많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사람,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을 보면서 ‘참 복 받은 인생이네’ 생각하곤 합니다.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도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곰곰이 살펴보면 일시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순간 병이 찾아오거나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게 되면, 건강함은 사라지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다가도 파탄이 나게 되면, 이 복 역시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붙잡는 복은 사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노쇠해지거나 병에 걸립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복 받은 인생이란 어떤 인생일까요? 개역개정 성경을 기준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검색해 보니 27개의 성경 구절이 확인되었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서 크게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복이 있도다’는 말씀 중 절반 정도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복에 관한 것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세상 너머의 복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죽음 이후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야말로 참 진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복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전제합니다. 첫째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둘째로 복을 받아 누리는 인간은 유한한 삶을 사는 피조물이라는 것, 셋째로 죽음 이후의 또 다른 세계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과 더불어 빈번하게 사용되는 표현도 함께합니다.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이 복이라는 단어와 자주 언급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 강성함, 후손이 번성하는 복을 받게 되고,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시 112:1~3; 시 128:1~2). “너희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시 34:9)

물론 스스로의 힘으로 복을 누리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혜와 능력으로 돈을 벌며 높은 곳에 오르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부유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인지를 묻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참된 복이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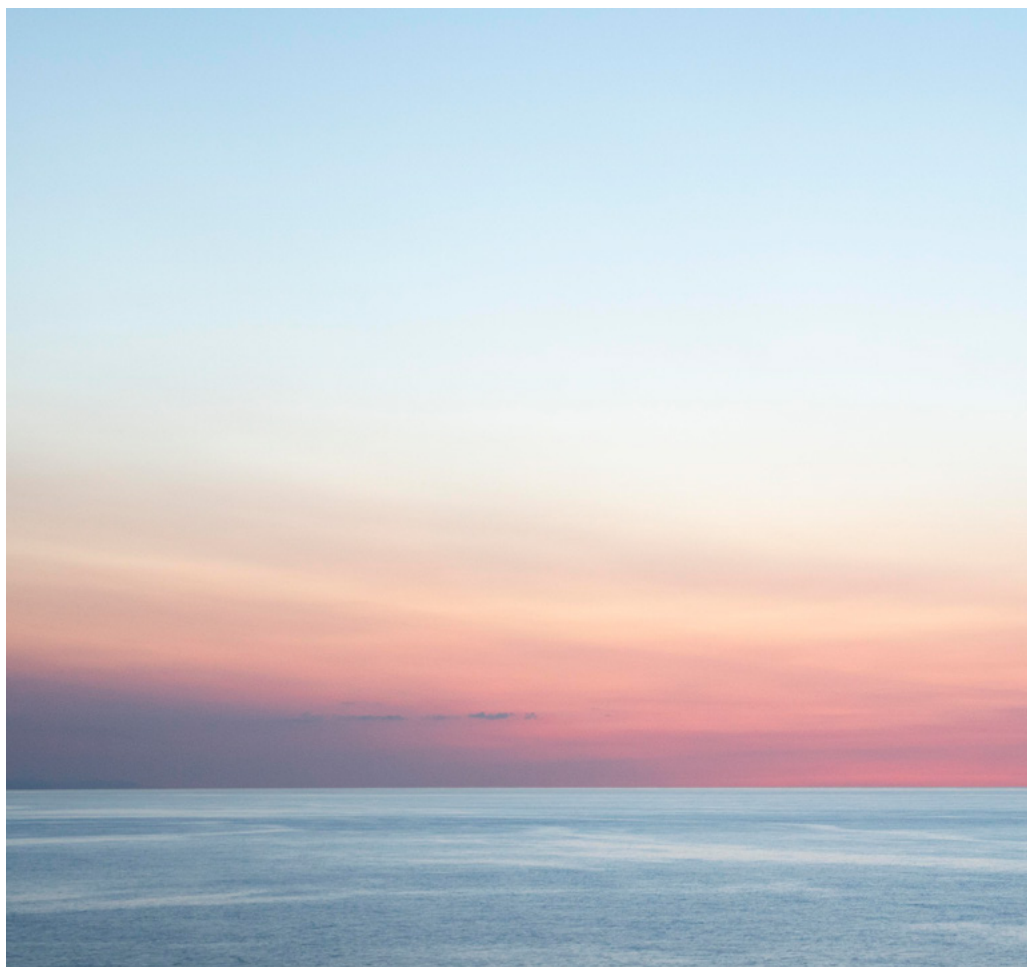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복, 다시 말해 세상 너머의 복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운명입니다(시 146:3~5).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 소망 두는 자에게 또 다른 길이 열린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죽음 이후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는 축복을 받습니다(시 32:1~2). 즉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가리어진’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계 19:9).

이들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주님 곁에 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는 자는 심판을 면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진노 가운데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복됩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피하는 자들이 복 받은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죽음 앞에서도 영원하신 주님을 노래하며, 죽음 뒤에 예비된 영생을 믿는 종교입니다. ‘나는 참 복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복 받은 사람입니다. 영생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공황을 구하는 기도

글 헨리 나우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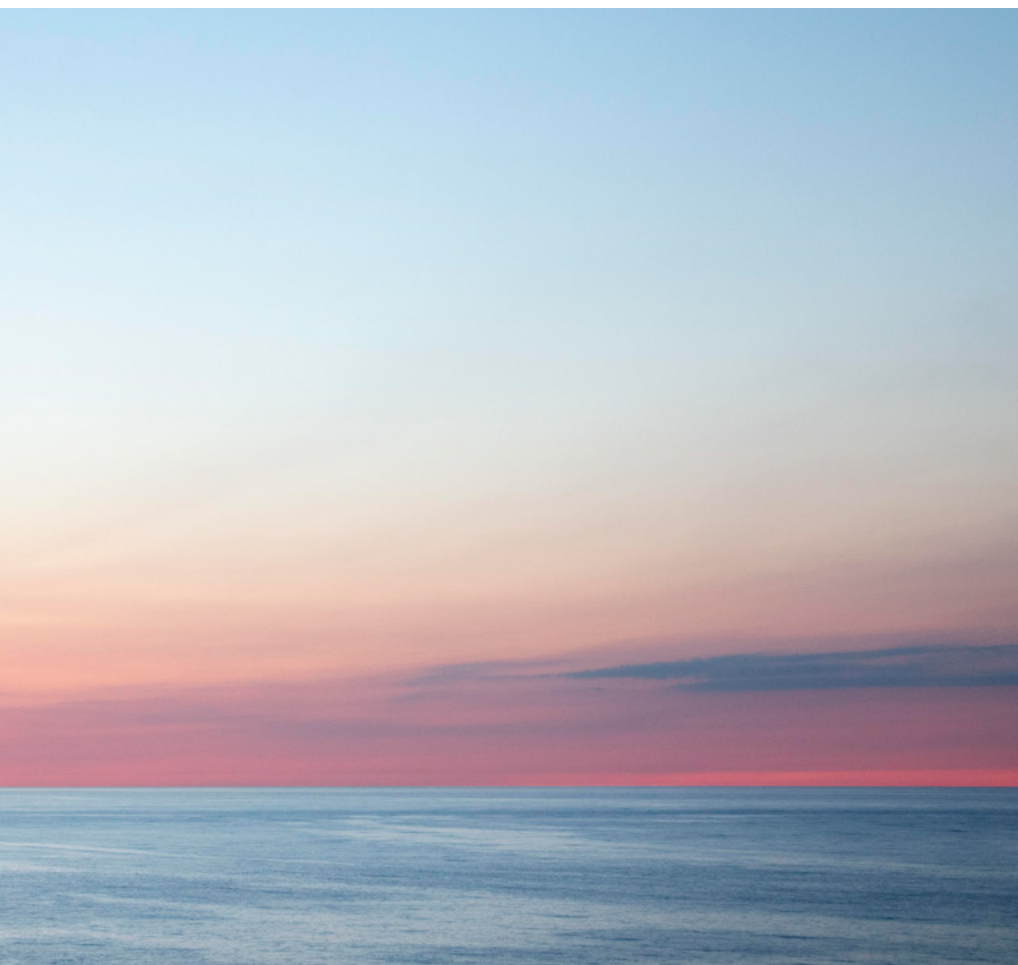


사랑하는 주님, 공의로우신 주님!

주님은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임을 압니다.



주님, 제가 무엇이라고 주님의 사랑과 보호와 자비를 기대합니까?

제가 무엇이기에 주님의 마음과 집과 나라에 저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까?

주님, 제가 무엇이라고 주님의 용서와 우정과 포용을 기대합니까?

그런데도 저는 그것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의지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주의 크신 긍휼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 주님!

주님은 공의로우시고 복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백성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날마다 붙드시는 그분이

저에게서 주의 흔적을 보시고,

주님 때문에 저를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따를 수 있게,

저의 삶이 주님의 삶과 하나되게,

주님의 사랑을 본받을 수 있게 도와주소서. 아멘.

- 헨리 나우웬 『긍휼을 구하는 기도』(이지혜 역, 포이에마, 2014) 30~31쪽.

WORD

역대하 · 욥기

역대하 · 욥기

역대하 · 욥기

역대하 · 욥기

역대하 · 욥기

역대하 · 욥기

역대하 · 욥기

역대하 · 욥기

역대하 · 욥기

역대하 · 욥기

역대하 · 욥기

역대하 · 욥기

역대하 · 욥기

역대하 · 욥기

역대하 · 욥기

역대하 · 욥기

역대하 · 욥기

역대하 · 욥기

역대하 · 욥기

역대하 · 욥기

역대하 · 욥기

역대하 · 욥기

역대하 · 욥기

역대하 · 욥기

역대하 · 욥기

역대하 · 욥기

역대하 · 욥기

역대하 · 욥기

역대하 · 욥기

역대하 · 욥기

역대하 · 욥기

역대하 · 욥기

역대하 · 욥기

역대하 · 욥기

역대하 · 욥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단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머무르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며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소망말씀나눔 본문에 따른 새벽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아이폰 : App Store에서 '소망교회'로 검색하여 설치
- 안드로이드폰 : T Store 혹은 Google Play에서 '소망교회'로 검색하여 설치
- 문의 : 교회사무실 02-512-9191 (내선 141~145)

말씀 속으로

1

수요일

역대하 1:1-6

대위작 48쪽 141-145쪽 금강산 일기 2020

말씀 속으로

1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건국되어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시니 신이 임대하여 주시니라
Solomon son of David established himself firmly over his kingdom, for the LORD his God was with him and made him exceedingly great.

2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원수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Then Solomon spoke to all Israel - to the commanders of thousands and commanders of hundreds, to the judges and to all the leaders in Israel, the heads of families -

3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묘한 신명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자기에 있더라
Solomon and the whole assembly went to the high place at Gibeon, for God's Tent of Meeting was there, which Moses the LORD's servant had made in the desert.

1단계 : 준비

말씀 앞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단계

말씀 앞에 조용히 앉으십시오. 묵상하는 동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생각이 마음을 흔들어놓거나 묵상에 방해가 될 것 같다고 여겨지거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먼저 기도하십시오.

2단계 : 이해

말씀을 읽고 귀로 듣는 단계

말씀을 두 번 정도 천천히 읽으십시오. 나직하게 소리 내어 읽으면 더 좋습니다. 입으로 읽으면 귀로 들리고, 귀로 들으면 그 뜻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처음 읽을 때에는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본문을 읽으십시오. (본문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목상집에 있는 《이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적용

말씀에 머물며 나를 살피는 단계

다시 한 번 읽으며 마음에 외닿는 말씀이나 새로 깨달은 말씀에
 밑줄을 긋고, 그 말씀에 머무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물으시면 정직하게 답변하십시
 오. 말씀 안에 머물며 나를 성찰하고 주시는 위로와 격려 뿐 아니
 라 질책까지도 귀 기울이십시오. (묵상을 위한 질문인 **「적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새벽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 더욱 깊이 응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메시지 안에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며, 한 공동체가 되어 갑니다.

4단계 : 기도

내 삶 속에 하나님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단계

하나님께 응답하는 첫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구하십시오. 본문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아래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여 답안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솔로몬 안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1-3)

성인 건반을 배운 뒤부터 악기가 아닌 악보에 대해 고민, 이해하는 시간이 점점 왕글 왕글 늘었다. 악보가 주는
정보에 의거한 음향적 대안이 아닌 연쇄적인 악보에 담긴 선율적 흐름과 구조를 따라가려 하는
노력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악보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열
두 가지에 대해 고민하고 또 고민할수록 악보의 구조와 악보의 변화는 곧잘 겹쳐진다. 다시 말
하면 악보에 따라 연주하는 하나의 선율적 흐름을 선율적 흐름의 변화, 구조적 변화에 따라 변
화하는 나만의 연주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이런 변화적인 악보의 구조를 건반에는 줄줄이 기록되
고, 그 변화에 따라 연주하는 악기의 악보에는 그 변화의 흐름이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 그리고
이 사실을 연주하는 모든 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이 질문을 의도적인 선율의 흐름과 구조
의 이해에 대한 관점으로 풀 수 있다. 그러나 악보의 구조를 악보의 선율의 흐름과 구조를 연관
시켜 이해할 때의 시점에 물론 변화의 구조적인 지점과 시점에 따라서 미묘한 차이가 있
고, 또 연관될 때의 시점에 따라 물론 변화의 구조적인 지점과 시점에 따라서 미묘한 차이가 있
고, 또 연관될 때의 시점에 따라 물론 변화의 구조적인 지점과 시점에 따라서 미묘한 차이가 있

2. 솔로몬의 순결이 부귀영화를 얻게 합니다(4-6)

[illegible]

적용 | 앞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보세요.

1. 출판권이 유언으로 상속시한 경우에는 그로써 유언 사후한 영상이 영장출발(30주)을 유언과 일치하는 자에게는 영장출신 상속물 영장출발 영장출신은 유언의 자해물 유산영상이 주는 마음을 기록해 놓는다.

2. 천 마리의 희색은 드러진 제물이나 바친 반제의 양적 측면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한 순교자의 임을 상징했다. 1집부터 그의 임을 보여 주는 흐름을 살펴, 건축 행위 이전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귀 기울여 보자.

목상열기 | 마음에 외딴은 구절을 필사하여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보시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45:5-7 나의 입으로 찬양하리니 내가 주님을 높리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리니.
 2 내가 높이며 주님을 송축하리니,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리니. 3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자칭이
 영원불변하시니이다. 그 위대하신이름을 찬양할 줄 알았다. 4 주님께서 하신 일들 모두가 대대로 집중하고,
 그 위대한 행적에 세상에 선포되니. 5 주님의 찬양과 그 영광스러운 위업과 주님의 놀라운 기적들
 가 모든 세대에 새겨질지니.

균형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양모 기도모 독서모 운동모 건강한식습관모 숙면모 균형과 청한모

역대하(1~9장)

역대상이 감동 없이는 읽지 못할 다윗의 기도로 마무리된다. 그의 기도는 ‘역시나 다윗이구나’ 실감케 할 정도로 위대하고도 아름다웠다. 아들 솔로몬과 그 시대에 함께할 백성을 위했다는 점에서 다윗이 심중에 품은 세계가 얼마나 광활하였는지 우리는 놀라게 된다.

아버지 다윗의 기도를 듣고 자라난 아들 솔로몬이 환히 등장한다(1:1). 역대하는 솔로몬과도 함께하신 하나님을 증언하며 실로 견고해지고, 창대해 가는 그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실상 두 사람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 모두를 자라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완성해 가신다.

그래서 솔로몬이 온 회중과 더불어 기브온 산당을 찾는다(1:3). 모세 시대 지어진 성막을 찾는 이스라엘 왕과 백성의 모습 속에서 피를 많이 흘린 다윗 시대를 지나 평화와 형통의 복을 받고 누린 솔로몬 시대를 가늠하게 된다. 왕과 백성의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난다. 다윗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붙잡고 또 붙잡는다.

‘천 마리 희생’, 온전한 순종으로 번제를 드린 그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신다.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1:7)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1:10) 감동하신 하나님이 구하지도 아니한 것까지 베풀어 주신다. 지혜와 지식, 부, 재물, 영광 ... 모든 것이 솔로몬의 것이 된다(1:11). 이후 스바 여왕이 그의 지혜를 시험하고자 방문해 보지만 탄복한 채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따른다(9장).

그 무게가 어느 정도였을까, 열왕들의 마음마저 사 버린 솔로몬의 위엄이(9:22-24). 1장 1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니 하나님 편에 붙들린 솔로몬의 마음이 비로소 발견된다. 다윗을 택하셔서 왕조를 이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날부터 아니, 그보다 훨씬 이전에 하나님은 만사를 작업하고 계셨다.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과 솔로몬의 마음이 맞닿으며 온전하신 뜻이 열려지기 시작한다. “여호와와 이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 하니라”(2:1 중)

구한 자 솔로몬과, 주신 자 하나님이 한 뜻 안에서 신비롭게 연합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간구한 지혜와 지식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최고의 성전을 짓도록 이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가 펼쳐진다. 보좌의 문을 여신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차고 넘친다.

성전 앞에서 솔로몬의 두 무릎이 꿇리고, 두 손이 하늘을 향하여 올라간다.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6:21 중)

한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열방의 이방인이든지를 막론하고 ‘성전을 향하여’ 빌며 간구하는 자가 있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청한다. 그 모습에서 기도하던 다윗이 보이고, 백성의 살 길을 열어 달라는 솔로몬의 호소가 우리 마음을 또다시 감동시킨다.

그가 기도 끝에 여호와와 기이하심을 맞본다. 여호와와 인자하심을 경험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7:14)

성전의 의미가 땅에 새겨진 그날, 이스라엘 앞에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린다. 영생이 예비된다. 그래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자,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는 실로 복되다.

한눈에 보는 이달의 본문

1~4일 주간		
1(수)	역대하 1:1~6	기브온 산당을 찾은 솔로몬
2(목)	1:7~17	솔로몬의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
3(금)	2:1~18	성전 건축 준비에 나서는 솔로몬
4(토)	읍기 34:21~37	엘리후의 변론 1
6~11일 주간		
6(월)	읍기 35:1~16	엘리후의 변론 2
7(화)	역대하 3:1~17	성전의 구조
8(수)	4:1~10	성전 안의 기구 1
9(목)	4:11~5:1	성전 안의 기구 2
10(금)	5:2~14	성전에 안치되는 언약궤
11(토)	읍기 36:1~33	엘리후의 변론 3
13~18일 주간		
13(월)	읍기 37:1~24	엘리후의 변론 4
14(화)	역대하 6:1~11	백성을 축복하는 솔로몬
15(수)	6:12~21	백성을 위한 솔로몬의 기도 1
16(목)	6:22~31	백성을 위한 솔로몬의 기도 2
17(금)	6:32~42	백성을 위한 솔로몬의 기도 3
18(토)	읍기 38:1~18	읍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20~25일 주간		
20(월)	읍기 38:19~41	읍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1
21(화)	역대하 7:1~10	성전 낙성식
22(수)	7:11~22	백성을 위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23(목)	8:1~11	솔로몬의 업적
24(금)	8:12~18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
25(토)	읍기 39:1~30	읍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2
27~30일 주간		
27(월)	읍기 40:1~24	읍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3
28(화)	역대하 9:1~12	솔로몬을 방문한 스바 여왕
29(수)	9:13~28	열왕의 칭송을 받는 솔로몬의 부와 지혜
30(목)	9:29~31	솔로몬의 죽음

11

November 2023

SUN	MON	TUE	WED
			1
5	6	7	8
12 장로 임직	13	14 화요조찬 성경공부 · 성인성서연구(화요반) 총강	15 권사회 월례회
19 추수감사주일 유아 세례식	20	21	22
26	27	28	29

12	S	M	T	W	T	F	S
Decembe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HU	FRI	SAT
2	3	4
9	10 여전도회 연합예배	11
16 성인성서연구(목요반) 종강	17	18
23	24	25
30		



1

수요일

역대하 1:1~6

오늘의 찬송 370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말씀 속으로

- 1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Solomon son of David established himself firmly over his kingdom, for the LORD his God was with him and made him exceedingly great,

- 2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Then Solomon spoke to all Israel - to the commanders of thousands and commanders of hundreds, to the judges and to all the leaders in Israel, the heads of families -

- 3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and Solomon and the whole assembly went to the high place at Gibeon, for God's Tent of Meeting was there, which Moses the LORD's servant had made in the desert,

-
- 4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랴트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Now David had brought up the ark of God from Kiriath Jearim to the place he had prepared for it, because he had pitched a tent for it in Jerusalem.

- 5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와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But the bronze altar that Bezalel son of Uri, the son of Hur, had made was in Gibeon in front of the tabernacle of the LORD; so Solomon and the assembly inquired of him there.

- 6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천 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Solomon went up to the bronze altar before the LORD in the Tent of Meeting and offered a thousand burnt offerings on it.

1:3 기브온 산당

본래 예배 장소였던 산당은 성전 완공 이후 우상 숭배를 하는 장소로 변질되어 간다.

1:5 브살렐

오홀리압의 도움을 받아 성막과 기구를 만든 장인이자(출 31:1-11).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솔로몬 안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1~3).

성전 건축을 예고하며 역대상이 마무리되고, 역대하는 성전의 완공을 알립니다. 특히나 솔로몬이 집권할 당시에 일어난 연대적인 사건으로서의 성전 건축을 다루기보다 이 일을 시작하기로 결단하시고 마침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관점이 강조됩니다. 다시 말해 부친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현실에 주목하며, 궁극적으로는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혜와 지식을 간구하는 솔로몬의 기도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며 믿음으로 함께해 왔는지를 암시합니다(1:10). 이 사실을 알려 주는 듯 흥미롭게도 1절은 솔로몬을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순종한 솔로몬의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 줍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를 틈 탈 자가 없을 만큼 견고하고 창대했던 시대에 왕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주요 지도자들이 기브온 산당을 찾아갑니다(2~3절). 모세 시대에 지은 회막이 있는 땅으로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 속에서 여호와와의 도우심을 구한 성숙한 이스라엘의 신앙을 엿보게 됩니다.

2. 솔로몬의 순종이 부귀영화를 얻게 합니다(4~6).

왕이 찾은 땅 ‘기브온’은 성경에서 종종 속임 혹은 폭력의 사건과 결부됩니다. 예를 들어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에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인 이력을 가진다거나(수 9장),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위한 다윗이 이스보셋 군대와 치열하게 싸운 곳이기도 합니다(삼하 2장). 그럼에도 성경은 이곳에 여전히 존재한 모세 시대의 산당을 비추며, 브살렐이 늦으로 지은 제단 위에서 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5~6절).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1장부터 등장한 기브온 산당은 솔로몬 시대에 지어질 성전을 연상케 하며 모세 시대와의 연속성을 헤아리게 하지만, 기술의 방향성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미래로 나아간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나 솔로몬 시대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며 그들을 찾아오신 여호와를 경외하였듯이 바벨론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을 찾은 공동체 안에 회복되어야 할 비전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 마리’의 희생 곧 완전하게 드려진 솔로몬의 순종이 귀환 공동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전을 재건하기를 부탁하는 듯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근원에는 그분의 뜻을 사모한 열심이 있습니다(1:10~11).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예비하신 축복을 받도록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하며 주시는 마음을 기록해 봅시다.
2. 천 마리의 희생은 드려진 제물이나 바친 번제의 양적 측면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한 솔로몬의 믿음을 상징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건축 행위 이전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45:1~5 ¹ 나의 임금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렵니다.
²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렵니다. ³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 위대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다. ⁴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대대로 칭송하고, 주님의 위대한 행적을 세세에 선포하렵니다. ⁵ 주님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내가 가슴 깊이 새기렵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2

목요일

역대하 1:7~17

오늘의 찬송 412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말씀 속으로

- 7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That night God appeared to Solomon and said to him, "Ask for whatever you want me to give you."

- 8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
오니

Solomon answered God, "You have shown great kindness to David my father and have made me king in his place.

- 9 여호와 하나님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
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Now, LORD God, let your promise to my father David be confirmed, for you have made me king over a people who are as numerous as the dust of the earth.

-
- 10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Give me wisdom and knowledge, that I may lead this people, for who is able to govern this great people of yours?"

- 11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God said to Solomon, "Since this is your heart's desire and you have not asked for wealth, riches or honor, nor for the death of your enemies, and since you have not asked for a long life but for wisdom and knowledge to govern my people over whom I have made you king,

- 12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therefore wisdom and knowledge will be given you. And I will also give you wealth, riches and honor, such as no king who was before you ever had and none after you will have."

- 13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Then Solomon went to Jerusalem from the high place at Gibeon, from before the Tent of Meeting. And he reigned over Israel.

1:11~12

'구하다'는 표현이 11절에는 세 번, '주다'는 표현이 12절에는 두 번 나온다. 이에 근원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행위의 중요성을 전한다는 해석이 따른다.

- 14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천사백 대요 마병이 만 이천 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Solomon accumulated chariots and horses; he had fourteen hundred chariots and twelve thousand horses, which he kept in the chariot cities and also with him in Jerusalem.

- 15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이 하였더라

The king made silver and gold as common in Jerusalem as stones, and cedar as plentiful as sycamore-fig trees in the foothills.

- 16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에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Solomon's horses were imported from Egypt and from Kue - the royal merchants purchased them from Kue.

- 17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육백 세겔이요 말은 백오십 세겔이라 이와 같이 헛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이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They imported a chariot from Egypt for six hundred shekels of silver, and a horse for a hundred and fifty. They also exported them to all the kings of the Hittites and of the Arameans.

1:14~17

열왕기서와는 다른 역대의 주요 특징으로 솔로몬의 과오가 생략된다는 점이다. 본 단락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의 시대를 짐작하게 하지만, 성경에는 많은 병거를 모으지 말라는 말씀이 함께한다(신 17:16).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밤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7~13).

천 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린 ‘그날 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7절) 그러자 대답합니다. “이제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셔서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여 주십시오.”(10절) 하나님의 물음과 솔로몬의 대답 사이에서 한 가지 통찰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던 왕의 두 가지 간구 제목은(11절), 그가 심중에 이미 바란 것이었습니다. 솔로몬과 함께하신 하나님이 지각을 열어 가시며 지혜와 지식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이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눈앞에 모여든 티끌 같은 백성을 보면서 아버지 다윗 때부터 들려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회상할 수 있었습니다(9절).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꼭 필요한 것을 간구케 하자, 그 마음에 감동하신 하나님이 구하지도 아니한 것까지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만남이 있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왕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불가능하였을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짐작하게 합니다(12~13절).

2. 하나님은 선한 마음을 가진 자를 찾으십니다(14~17).

위대한 왕 다윗의 뒤를 이어 치리하는 것만으로도 솔로몬에게는 적잖은 부담이었을 듯합니다. 그러나 그의 시대에, 또 그에 합당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왕과 백성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솔로몬은 결국 마음에 품어 온 가장 귀한 소원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날 밤의 사건 이후 본격적으로 기술되는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은, 왕이 구한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였음을 실감하게 만듭니다. 이렇듯 솔로몬은 스스로를 만족케 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안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뜻에 맞닿아 기도할 줄 안 솔로몬을 향하여 전과 후로도 없을 자라고 높이 칭합니다(12절). 그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구하지도 아니한 것까지도 허락하시는 부요하신 아버지요, 말씀대로 행하여 주시는 진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장은 솔로몬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확신하며 따랐는지를 보여 줍니다. 그가 부귀영화를 얻게 된 비결을 전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됩니까?
2.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왕의 자리를 감당한 솔로몬에게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부귀영화가 임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보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37:3~5,29 ³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⁴ 기쁨은 오직 주님께에서 찾아라. 주님께서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⁵ 네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²⁹ 의인은 땅을 차지하고, 언제나 거기에서 살 것이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1 솔로몬이 여호와와 이름의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Solomon gave orders to build a temple for the Name of the LORD and a royal palace for himself.

- 2 솔로몬이 이에 짐꾼 칠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팔만 명과 일을 감독할 자 삼천육백 명을 뽑고

He conscripted seventy thousand men as carriers and eighty thousand as stonecutters in the hills and thirty-six hundred as foremen over them.

- 3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Solomon sent this message to Hiram king of Tyre: "Send me cedar logs as you did for my father David when you sent him cedar to build a palace to live in.

-
- 4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의 절기에 아침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Now I am about to build a temple for the Name of the LORD my God and to dedicate it to him for burning fragrant incense before him, for setting out the consecrated bread regularly, and for making burnt offerings every morning and evening and on Sabbaths and New Moons and at the appointed feasts of the LORD our God. This is a lasting ordinance for Israel.

- 5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The temple I am going to build will be great, because our God is greater than all other gods.

- 6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But who is able to build a temple for him, since the heavens, even the highest heavens, cannot contain him? Who then am I to build a temple for him, except as a place to burn sacrifices before him?

- 7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Send me, therefore, a man skilled to work in gold and silver, bronze and iron, and in purple, crimson and blue yarn, and experienced in the art of engraving, to work in Judah and Jerusalem with my skilled craftsmen, whom my father David provided.

- 8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Send me also cedar, pine and alnum logs from Lebanon, for I know that your men are skilled in cutting timber there. My men will work with yours

- 9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재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to provide me with plenty of lumber, because the temple I build must be large and magnificent,

- 10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쪼은 밀 이만 고르와 보리 이만 고르와 포도주 이만 밶과 기름 이만 밶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I will give your servants, the woodsmen who cut the timber, twenty thousand cors of ground wheat, twenty thousand cors of barley, twenty thousand baths of wine and twenty thousand baths of olive oil.”

-
- 11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므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Hiram king of Tyre replied by letter to Solomon: "Because the LORD loves his people, he has made you their king."

- 12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And Hiram added: "Praise be to the LORD, the God of Israel, who made heaven and earth! He has given King David a wise son, endowed with intelligence and discernment, who will build a temple for the LORD and a palace for himself.

- 13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I am sending you Hiram-Abi, a man of great skill,

- 14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베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whose mother was from Dan and whose father was from Tyre. He is trained to work in gold and silver, bronze and iron, stone and wood, and with purple and blue and crimson yarn and fine linen. He is experienced in all kinds of engraving and can execute any design given to him. He will work with your craftsmen and with those of my Lord, David your father.

2:13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역대하에서 후람-아비라고 표기된 이 인물과 솔로몬은 모세 시대 성막과 기구를 건축하는 데 기여한 오홀리압과 브살렐에 비유되곤 한다.

- 15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Now let my Lord send his servants the wheat and barley and the olive oil and wine he promised,

- 16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떼를 엮어 바다에 띄워 읍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재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and we will cut all the logs from Lebanon that you need and will float them in rafts by sea down to Joppa. You can then take them up to Jerusalem.”

- 17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십오만 삼천육백 명이라

Solomon took a census of all the aliens who were in Israel, after the census his father David had taken; and they were found to be 153,600.

- 18 그중에서 칠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팔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삼천육백 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He assigned 70,000 of them to be carriers and 80,000 to be stonecutters in the hills, with 3,600 foremen over them to keep the people working.

2:16

두로에서 옴바까지는
뱃길로 대략 160km, 옴
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산악길로 약 50km에
달한다. 그만큼 솔로몬
과 두로 왕 사이의 계약
은 성사되기 어려운 조
건이었다.

2:17 이스라엘 땅에 사 는 이방 사람들

17~18절을 기준으로 2
절의 '일꾼'을 해석하면
모두 이방인으로 확인
된다. 반면에 열왕기상
5장 13절은 이스라엘 중
에서 소집된 일꾼과, 9
장 20~22절은 이스라
엘 땅에 남은 가나안 족
속 중 소집된 일꾼을 보
여 준다. 이러한 차이에
관하여 성경해석자들
은 외국인은 강제 노동
이 요구된 노예로 소집
되었다면, 이스라엘 자
손에게는 일정 기간의
의무만이 요구되었다고
주장한다.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솔로몬의 정성이 대단합니다(1~10).

2장부터는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전과 후로도 그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는 축복을 받은 솔로몬의 면모를 보게 합니다. 그는 축복을 받는 일에 그치지 아니하고 부여받은 축복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선용하는 일에 구체적으로 나섭니다(1절). 과연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구나를 실감케 하는 왕의 결심은 모든 왕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위하여 큰 성전을 짓고자 이방의 왕에게 사절을 보내는 정성으로 이어집니다(3,5절). 물론 두로 왕 히람이 부친 다윗을 도와 궁궐을 짓는 일에 기여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어렵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유하고도 부유한 중에 이스라엘보다 뛰어난 장인을 데려오고, 좋은 목재를 받아오는 일에 기꺼이 스스로를 낮춥니다(7-8절). 이 대목에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였는지 느끼게 되는데, 흥미롭게도 솔로몬과 제사 곧 예베드리는 모습이 계속해서 연결됩니다(4절; 1:6). 하나님의 일에 심혈을 기울인 그가 뜻을 함께하는 인력에게도 너그러운 인심을 베풁니다(10절).

2.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므로”(11~18)

하나님을 향하는 정성과 진실된 마음은 사람에게도 통하는 법입니다. 히람 왕의 마음을 얻고자 사절을 보내어 인사를 전한 솔로몬에게 이번에는 히람이 답신을 전달합니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대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11절) 두 눈을 의심케 만드는 이 놀라운 고백을 통하여 이방의 한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케 하시는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두로의 선포는 사실상 성전이 이스라엘에게 뜻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자,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증시켜 줍니다. 이 고백이 이제는 고향 땅에 귀환하여 척박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던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스며들며, 그들을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을 증언하게 되는 역사를 기대하도록 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하나님을 위하는 일에 도움을 요청하는 솔로몬이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스라엘 왕과 이방 왕의 연합을 그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주시는 마음을 기록해 봅시다.
2. 성전이 건축되는 핵심 토대가 히람의 고백 속에서 짚게 묻어나옵니다. 나를 향하신 말씀으로 11절을 받으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95:3~6 ³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지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다. ⁴ 땅의 깊은 곳도 그 손 안에 있고, 산의 높은 꼭대기도 그의 것이다. ⁵ 바다도 그의 것이며, 그가 지으신 것이다. 마른 땅도 그가 손으로 빚으신 것이다. ⁶ 오너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욥기 34:21~37

오늘의 찬송 214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말씀 속으로

- 21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His eyes are on the ways of men; he sees their every step.

- 22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There is no dark place, no deep shadow, where evildoers can hide.

- 23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God has no need to examine men further, that they should come before him for judgment.

- 24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Without inquiry he shatters the mighty and sets up others in their place.

- 25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엎어 흠으시는도다

Because he takes note of their deeds, he overthrows them in the night and they are crushed.

26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He punishes them for their wickedness where everyone can see them,

27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because they turned from following him and had no regard for any of his ways,

28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 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They caused the cry of the poor to come before him, so that he heard the cry of the needy.

29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 신다면 누가 그를 뵈을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But if he remains silent, who can condemn him? If he hides his face, who can see him? Yet he is over man and nation alike,

30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옭아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to keep a godless man from ruling, from laying snares for the people,

- 31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Suppose a man says to God, 'I am guilty but will offend no
more.

- 32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
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Teach me what I cannot see; if I have done wrong, I will not
do so again.'

- 33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
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Should God then reward you on your terms, when you refuse
to repent? You must decide, not I; so tell me what you know.

- 34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Men of understanding declare, wise men who hear me say to
me,

- 35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Job speaks without knowledge; his words lack insight.

36 나는 욕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Oh, that Job might be tested to the utmost for answering like a wicked man!

37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To his sin he adds rebellion; scornfully he claps his hands among us and multiplies his words against God."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해석에는 관점이 담겨 있습니다(21~30).

엘리후의 첫 등장은 짧지만 강렬했습니다. 가장 연소한 그가 먼저는 욥을 제대로 타이르지 못했다는 평계를 구실 삼아 세 친구를 비난하고, 욥은 제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 교만하고 고집스런 사람으로 일단락시킵니다. 그만큼 그의 변론이 얼마나 새로운 지혜를 깨닫게 할지 기대하게 되지만 아쉽게도 세 사람을 실컷 흥본 뒤에 뒤따르는 엘리후의 말이 그다지 흥미롭지 않은 않습니다. 그 역시 고난당하는 욥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럴 만한 죄가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지를 뽐, 하나님의 심판에 토를 달지 말라는 권고에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다를 바 없는 입장이 보입니다. 엘리후는 욥과 같이 부자요, 욥과 같이 명성 있는 자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데에는 가난한 자와 억울한 자의 하소연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주장합니다(28절). 한마디로 욥이 불의한 부자였다는 셈입니다. 위로인지, 권면인지, 비난인지 도통 알 수 없는 해석에서 그저 욥이 부러웠던 엘리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2. 함께 웃고 우는 길에서 생명이 살아납니다(31~37).

세 친구와 동일하게 엘리후는 현실을 보면서 욥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잠잠히 질문하게 됩니다. ‘욥이 행통의 복을 누리는 동안에 엘리후의 심정은 어떠하였을까?’ 어렵고 위태한 상황에 처한 이웃을 보면서 불의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비난을 던지는 성품에 비추어 볼 때, 아마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욥을 향해서는 축복을 건네주는 커녕 불만을 잔뜩 품고 있지는 않았을까 반문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심정 안에서 엘리후 외 남은 세 친구도 비슷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어렵지 않게 하게 됩니다. 어려울 땐 동정하며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기뻐할 땐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본이 되어 주셨고, 그분의 뒤를 따라 생명의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 함께 울고 웃으라는 말씀을 남겨 주었습니다(롬 12:15).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귀하게 다루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내가 혹은 이웃이 좋고, 슬프고, 기쁘고, 힘든 일을 경험할 때 어떠합니까? 막힘 없는 마음으로 감정들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2. 다른 사람의 생명을 대하는 마음이 어떠한지 돌아보며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앞에 잠잠히 머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42:5~8 ⁵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⁶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⁷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깊음은 깊음을 부르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가 한 덩이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⁸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 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함께하는 공동체

글 안OO·우OO (프랑스 선교사)



프랑스, 독일, 마다가스카르, 한국 교회의 연합 예배

툴루즈에서는 매년 9월 중순경에 프랑스교회, 독일교회, 마다가스카르 교회, 한국교회 4개의 교회가 함께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합니다. 이렇게 4개의 교회가 함께하는 이유는 프랑스 개척교회 건물을 함께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건물 주인이 프랑스 교회이지만 오랫동안 함께해 왔기 때문에 주인과 세입자의 개념이 아닌,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9월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의 공동체를 소개하며 성찬식을 나눕니다.

4개 교회의 협력 사역

4개의 교회는 프랑스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협력 사역들도 함께합니다. 특히 프랑스에 들어오는 아프리카 및 중동 이슬람 난민들을 위한 사역, 빈민 구제 사역, 신학포럼 및 세미나 개최, 선교바자회 등 여러 가지 사역들에 있어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들

은 월 1회 정기 기도회 모임을 갖고 각 교회의 기도 제목과 어려움들을 나누며 위로하고 기도합니다. 해외에서는 협력 사역이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함께 할 계획입니다.

디저트 카페 소식

프랑스의 젊은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시작된 한국 디저트 카페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학생이 서툰 한국말로 직접 쓴 손편지를 남기고 갔습니다. 카페의 환대가 큰 힘과 위로가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카페를 찾는 프랑스의 젊은이들에게 위로와,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톨루즈 교회 소식

코로나 이후 한동안 뜸했던 새 가정이 등록을 했습니다. 어린 자녀가 3명이나 있어서 교회가 모처럼 아이들의 소리로 떠들썩해졌습니다. 덕분에 주일학교도 다시 시작되고 보다 활기찬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힘든 시대에 톨루즈 교회가 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시작된 지 600일이 되었지만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이로 인한 에너지 가격의 상승, 생필품에 대한 인플레이션, 유럽으로 유입되는 아프리카 및 중동의 난민들 행렬... 현재 유럽은 기존에 겪지 못한 많은 어려움들과 위기에 당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선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와 사랑의 손길을 아끼지 않으시는 동역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와 안부를 전합니다.

기도 제목

1. 톨루즈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2. 프랑스의 이슬람 난민들을 돕는 사역이 계속 확장될 수 있도록
3. 프랑스 청년들을 위한 한국 디저트 카페를 통해 그들이 주님께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4. 프랑스 개척교회와의 여러 가지 협력 사역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5. 가족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5

—
주일

주일설교 노트

설교제목

성경본문

11/5~11

오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무궁토록 견고할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는 정의의 통치입니다. (시 45:6)

Nov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6

욥기 35:1~16

월요일

오늘의 찬송 302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말씀 속으로

1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Then Elihu said:

2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나

“Do you think this is just? You say, ‘I will be cleared by God.’

3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죠했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마는

Yet you ask him, ‘What profit is it to me, and what do I gain by not sinning?’

4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I would like to reply to you and to your friends with you,

5 그대는 하늘을 우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Look up at the heavens and see; gaze at the clouds so high above you,

-
- 6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If you sin, how does that affect him? If your sins are many, what does that do to him?

- 7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If you are righteous, what do you give to him, or what does he receive from your hand?

- 8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Your wickedness affects only a man like yourself, and your righteousness only the sons of men.

- 9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Men cry out under a load of oppression; they plead for relief from the arm of the powerful.

- 10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But no one says, 'Where is God my Maker, who gives songs in the night,

- 11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who teaches more to us than to the beasts of the earth and makes us wiser than the birds of the air?

- 12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He does not answer when men cry out because of the arrogance of the wicked.

- 13 헛된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Indeed, God does not listen to their empty plea; the Almighty pays no attention to it.

- 14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뵈올 수 없고 일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보나

How much less, then, will he listen when you say that you do not see him, that your case is before him and you must wait for him,

- 15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and further, that his anger never punishes and he does not take the least notice of wickedness.

16 욱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So Job opens his mouth with empty talk; without knowledge
he multiplies words,”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엘리후의 하나님은 매정하신 분입니다(1~8).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34:36) 매정하고도 참으로 섬뜩한 말입니다. 해명하기도, 쉽게 벗어날 수도 없는 고난 중의 욥을 향하여 엘리후는 어떠한 공감 없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아픈 자나 우는 자가 있다면 응당 눈길이 가게 마련인데, 어떻게 하나같이 매정할 수 있을까 심히 놀랍기만 합니다. 한편으론 욥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느끼는 이 감정이 그리 낯설지만도 않은 것은 스스로의 확신에 찬 말로 관계가 허물어지거나 일이 어그러지는 경우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후도 한계를 가진 인간일 뿐,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헤아리시며 갚으시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닮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매우 편파적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엘리후의 하나님은 사람에게서는 별 흥미도, 관심도 갖지 않으시는 무서운 재판장일 뿐입니다. 그의 이해가 욥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깊이 묻어나는 듯합니다.

2. 하나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시는 분입니다(9~16).

엘리후가 믿은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13절) 욥이 아무리 심경을 토로하고 토로해 봤자 하나님께는 전부 헛되다는 것입니다(16절). 여기서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욥을 정죄하는 엘리후를 보게 되는가 하면, 자신의 말은 헛되지 않으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는 확신에 찬 모습을 엿보게도 됩니다.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한다는 말에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리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내 엘리후는 욥의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시며 목숨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스스로 증언하게 됩니다(15절). 자신의 말이 서둘러 응답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심정이 어떠하였을지 내심 궁금해지는 이때에 우리는 헛된 말이라도 끝까지 들어주시는 하나님, 악행에도 길이 참으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욥기서에 기록된 긴 대화는 각자 안에 변화되어야 할 무수한 감정들을 반증합니다.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이 변화되어 가는 일에 열린 마음이 있습니까?
2. 15절은 욥이나 엘리후 모두와 끝까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사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며 사는지 돌아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45:8~10 ⁸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⁹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 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¹⁰ 주님,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며,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1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와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 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Then Solomon began to build the temple of the LORD in Jerusalem on Mount Moriah, where the LORD had appeared to his father David. It was on the threshing floor of Araunah the Jebusite, the place provided by David.

- 2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He began building on the second day of the second month in the fourth year of his reign.

- 3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육십 규빗이요 너비가 이십 규빗이며

The foundation Solomon laid for building the temple of God was sixty cubits long and twenty cubits wide (using the cubit of the old standard).

-
- 4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이십 규빗이요 높이가 백이십 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The portico at the front of the temple was twenty cubits long across the width of the building and twenty cubits high. He overlaid the inside with pure gold.

- 5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He paneled the main hall with pine and covered it with fine gold and decorated it with palm tree and chain designs.

- 6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 임 금이며

He adorned the temple with precious stones. And the gold he used was gold of Parvaim.

- 7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새겼더라

He overlaid the ceiling beams, doorframes, walls and doors of the temple with gold, and he carved cherubim on the walls.

- 8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이십 규빗이요 너비도 이십 규빗이라 순금 육백 달란트로 입혔으니

He built the Most Holy Place, its length corresponding to the width of the temple - twenty cubits long and twenty cubits wide. He overlaid the inside with six hundred talents of fine gold.

3:3 규빗

히브리어로는 '암마로' 표현되는 '규빗'은 길이를 측정하는 한 단위이다. 보통 긴 규빗과 짧은 규빗이 있는데 전자는 53cm, 후자는 46cm 정도이다.

9 못 무게가 금 오십 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The gold nails weighed fifty shekels. He also overlaid the upper parts with gold.

10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In the Most Holy Place he made a pair of sculptured cherubim and overlaid them with gold.

11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이십 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다섯 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다섯 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The total wingspan of the cherubim was twenty cubits. One wing of the first cherub was five cubits long and touched the temple wall, while its other wing, also five cubits long, touched the wing of the other cherub.

12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다섯 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다섯 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Similarly one wing of the second cherub was five cubits long and touched the other temple wall, and its other wing, also five cubits long, touched the wing of the first cherub.

13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이십 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서 있으며

The wings of these cherubim extended twenty cubits. They stood on their feet, facing the main hall.

14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베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He made the curtain of blue, purple and crimson yarn and fine linen, with cherubim worked into it.

15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삼십오 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다섯 규빗이라

In the front of the temple he made two pillars, which together were thirty-five cubits long, each with a capital on top measuring five cubits,

16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머리에 두르고 석류 백 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He made interwoven chains and put them on top of the pillars. He also made a hundred pomegranates and attached them to the chains,

17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요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He erected the pillars in the front of the temple, one to the south and one to the north. The one to the south he named Jakin and the one to the north Boaz.

3:14 휘장문

신약 시대에 휘장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지막 호흡과 함께 두 갈래로 찢어진다. 휘장문은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된 상태를 반영한다.

3:16 석류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과일이다.

3:17 야긴

저가 세우리라

3:17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모리아 산에 성전이 지어집니다(1~7).

3장부터 4장에는 성전과 그 안에 쓰인 기구에 관한 묘사가 이어집니다. 흥미롭게도 출애굽한 지 사백팔십 년 만에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다고 기록하며 건축의 '시기'를 주목하는 열왕기서와 달리(왕상 6:1), 역대하는 성전이 지어지는 '장소'에 관심을 가집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걸쳐서 모리아 산이라 일컫는 이곳은 꽤나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곳인가 하면, 인구조사를 실시한 대가로 큰 심판을 받은 다윗이 허물의 사함을 받게 된 땅이기도 합니다. 이 은혜의 땅에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때는 그가 왕으로 즉위한 지 넷째 해였습니다(2절). 한편, 성경은 성전의 각 구조를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 크게 세 공간인 뜰, 성소, 지성소로 나누며 각 공간에 해당하는 측량값을 남겨 둡니다. 성전의 각 내부는 풍요나 다산을 상징하는 종려나무와 같은 귀한 목재로 만들어진 후에 금으로 입혀졌는데, 성전의 입구에서 지성소로 들어갈수록 품질이나 양에 있어서 보다 화려하고 많은 금이 사용됩니다(5-7절).

2. 성전의 각 구조는 의미를 가집니다(8~17).

역대기 저자의 시선이 지성소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중에서도 지성소 안에 세워진 두 그룹의 형상에 초점을 둡니다. 묘사에 의하면 두 그룹은 한쪽 날개를 맞대어 서 있는 형태를 가지는데, 두 그룹의 편 날개를 측량하면 길이가 이십 구빗에 달한다고 합니다(11~13절). 사실상 지성소 너비 전체를 아우르는 이 길이는 두 그룹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언약궤의 중요성을 상기시킬 뿐만 아니라 성전 전체에 가득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재미있게도 성전 앞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에 관한 구절에는 부제까지 달리며, 그 형상이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다는 인상을 남깁니다(15~17절). 하나는 '저가 세우리라', 다른 하나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의미를 가지는 두 기둥에 관한 기록이 황폐해진 예루살렘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기초가 다시 세워지게 될 성전의 미래를 상상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성전이 세워진 터를 주목하는 역대기 저자의 관점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공동체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지 상상해 봅시다.
2. 야긴과 보아스의 의미는 귀한 공동체가 당면한 역사적 과제를 깨우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이 새겨진 기둥의 의미를 나와 우리 가정에 적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길 기도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보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86:10~12 ¹⁰ 주님은 위대하셔서 놀라운 일을 하시니,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¹¹ 주님,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따르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겠습니다.

¹² 주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렵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1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이십 규빗이요 너비가 이십 규빗이요 높이가 십 규빗이며

He made a bronze altar twenty cubits long, twenty cubits wide and ten cubits high,

- 2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십 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다섯 규빗이요 주위는 삼십 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He made the Sea of cast metal, circular in shape, measuring ten cubits from rim to rim and five cubits high. It took a line of thirty cubits to measure around it,

- 3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열 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러었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Below the rim, figures of bulls encircled it - ten to a cubit. The bulls were cast in two rows in one piece with the Sea,

-
- 4 그 바다를 놋쇠 황소 열두 마리가 받쳤으니 세 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The Sea stood on twelve bulls, three facing north, three facing west, three facing south and three facing east. The Sea rested on top of them, and their hindquarters were toward the center.

- 5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삼천 바를 담졌으며

It was a handbreadth in thickness, and its rim was like the rim of a cup, like a lily blossom. It held three thousand baths.

- 6 또 물두멍 열 개를 만들어 다섯 개는 오른쪽에 두고 다섯 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He then made ten basins for washing and placed five on the south side and five on the north. In them the things to be used for the burnt offerings were rinsed, but the Sea was to be used by the priests for washing.

- 7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열 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다섯 개요 오른쪽에 다섯 개이며

He made ten gold lampstands according to the specifications for them and placed them in the temple, five on the south side and five on the north.

4:3 소
왕상 7:24에는 '박'

- 8 또 상 열 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다섯 개요 오른쪽에 다섯 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백 개를 만들었고

He made ten tables and placed them in the temple, five on the south side and five on the north. He also made a hundred gold sprinkling bowls.

- 9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He made the courtyard of the priests, and the large court and the doors for the court, and overlaid the doors with bronze.

- 10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He placed the Sea on the south side, at the southeast corner.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성전의 기구가 소개됩니다(1~6).

성전의 구조가 요약적으로 설명된 3장 이후에 4장은 성전 안의 각 기구를 다룹니다. 특히나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표현 ‘만들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로 결심한 대로 적극적인 순종을 보이는 솔로몬을 암시합니다(2:1). 성전 정면에 배치된 놋 제단은 속죄가 이루어지고 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실존을 상징합니다(1절). 다음으로 놋 제단 옆에는 놋 바다, 일명 물탱크라고 알려진 저장소가 있는데 번제를 드리기 전 제사장의 몸을 씻는 물을 보관하였다고 전해집니다(2절). 학자들에 의하면 바다를 받치는 열두 마리의 황소 형상은 작게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크게는 천지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와 주권을 나타냅니다(4절). 백합화의 모양이 새겨진 바다가 제사장의 것이라면, 성전의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5개씩 놓인 물두멍에는 번제물을 씻는 물이 담겨 있습니다(6절). 이렇듯 제단에서 성소로 나아가는 흐름 속에서 물, 정결의 모티브를 담고 있는 본문은 이스라엘이 정결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여호와와의 인자하심을 전합니다.

2. 솔로몬의 믿음이 화려한 성전처럼 빛납니다(7~10).

솔로몬이 만든 네 번째 기구로는 ‘등잔대’ 곧 ‘촛대’가 등장합니다(7절). 모세 시대의 성막에는 한 개였던 등잔대가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성전 안에는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총 10개로 배치됩니다. 순금을 입힌 방 안에 금으로 만들어진 촛대라니, 게다가 환히 빛나는 불빛은 상상만으로도 우리의 눈을 비추어 줍니다. 등잔대 다음으로는 금으로 입힌 상 열 개와 금으로 만든 대접 백 개가 소개됩니다(8절). 상의 용도에 관한 정확한 해석이 따르지는 않으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10개의 등잔대(촛대)를 받치는 상이 아니었을까 의견을 모읍니다. 기구 하나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값비싼 재료인 금을 사용하는 손길에서 솔로몬이 누린 부귀영화의 무게를 짐작케 하는 한편,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잠잠히 느끼게 됩니다. 그야말로 솔로몬 시대 성전은 심미적으로 화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와의 크심을 알고 송축하라는 메시지가 곳곳에 새겨진 은혜로운 처소였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놋 제단은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합니다. 놋 제단에서 번제를 드린 날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사건을 기억하며(1:6),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는 하루를 사모합니다.
2. 여호와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아 간 믿음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최고의 성전을 짓고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도록 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더 감사하는 나와 우리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03:15~18,21 ¹⁵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고, 피고 지는 들꽃 같아, ¹⁶ 바람 한 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는 것이다. ¹⁷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 까지 이르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자손 대대에 이를 것이니, ¹⁸ 곧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법도를 기억 하여 따르는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²¹ 주님의 모든 군대들아, 그의 뜻을 이루는 종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11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He also made the pots and shovels and sprinkling bowls. So Hiram finished the work he had undertaken for King Solomon in the temple of God:

- 12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기둥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the two pillars; the two bowl-shaped capitals on top of the pillars; the two sets of network decorating the two bowl-shaped capitals on top of the pillars;

- 13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의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사백 개와

the four hundred pomegranates for the two sets of network (two rows of pomegranates for each network, decorating the bowl-shaped capitals on top of the pillars

- 14 또 받침과 받침 위의 물두멍과

the stands with their basins;

15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열두 마리와

the Sea and the twelve bulls under it;

16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에

the pots, shovels, meat forks and all related articles. All the
objects that Hiram-Abi made for King Solomon for the temple
of the LORD were of polished bronze.

17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숙곳과 스레다 사이의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The king had them cast in clay molds in the plain of the Jordan
between Succoth and Zarethan.

18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All these things that Solomon made amounted to so much that
the weight of the bronze was not determined.

19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 제
단과 진설병 상들과

Solomon also made all the furnishings that were in God's
temple: the golden altar; the tables on which was the bread of
the Presence;

4:15 한 바다

히브리어) '큰 물두멍'을
가리킴

20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켜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the lampstands of pure gold with their lamps, to burn in front of the inner sanctuary as prescribed;

21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the gold floral work and lamps and tongs (they were solid gold);

22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the pure gold wick trimmers, sprinkling bowls, dishes and censers; and the gold doors of the temple: the inner doors to the Most Holy Place and the doors of the main hall,

1 솔로몬이 여호와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곳에 두었더라

When all the work Solomon had done for the temple of the LORD was finished, he brought in the things his father David had dedicated - the silver and gold and all the furnishings - and he placed them in the treasuries of God's temple,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다윗의 기도가 응답됩니다(11~18).

성전을 짓는 과정에 솔로몬이 보여 준 정성이 부각되었다면, 이제 두로 왕 히람이 보낸 장인의 공이 조명됩니다. 솔로몬 왕과 두로 왕 사이에는 일종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먼저 사절을 보냈고 두로 왕이 흔쾌히 요청을 받아들이며 재주 있고 총명한 장인을 보내기로 약속합니다.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현실을 보여 주는 본 단락은 장인 후람아비가 다른 나라, 그것도 자신이 숭배하는 신이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데 얼마나 열심이었는지를 묘사합니다. 성경은 그가 술, 부삽, 대접을 비롯한 많은 물건을 제작하였다고 밝힐 뿐만 아니라 솔로몬과 이루어진 아름다운 연합에도 주목합니다. 후람아비가 놋으로 기구들을 만들었다면, 솔로몬은 그 기구들을 금으로 입혔습니다(16~18절). 심지어 그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기구는 '매우' 많았고, 기구를 만들고자 사용된 놋의 무게는 능히 측량할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광경 앞에서 성전 건축을 위하여 모두가 정성된 마음을 가지기를 기도했던 다윗의 간절한 간구가 들려옵니다.

2.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과 함께한 왕입니다(19~5:1).

솔로몬이 만든 기구에는 놋 제단, 놋 바다, 물두멍, 금 등잔대, 금 상, 금 대접, 제사장의 뜰과 문이 있습니다(4:1~9). 이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18절과 함께 또 다른 기구들이 나열되기 시작하는데, 금 제단과 진설병 상과 순금 등잔대와 등잔이 확인됩니다. 이때에 금 제단은 지성소 앞에 향을 피우는 금 분향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분향단에서 났만 피어오르는 향이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상징한다면, 금 상 위에 놓인 진설병은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우시며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킵니다(출 25:30). 놋 제단에 관한 묘사를 시작으로 금으로 입힌 성전 안과 지성소 문을 언급하며 마무리되는 말씀의 흐름은, 안으로 들어갈수록 사용된 귀한 재료와 더불어 영광의 무게를 고스란히 전합니다(22절). 비로소 다윗이 생애에 바친 기구가 성전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는 기록과 함께 성전의 완공을 알리는 5장 1절은, 다윗의 기도 전부터 이 일을 시작하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되는 마음을 구한 다윗의 기도를 떠올리며, 하나님의 일에 한마음으로 순종하는 이 땅의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 다윗이 후손을 위하여 기도하였다면 솔로몬은 부친의 역사를 이어 갑니다. 5장 1절이 기록된 이유를 생각하면서 두 사람의 연합을 가능케 한 근원을 생각해 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05:1~4,8 ¹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²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³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⁴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⁸ 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가 허락하신 약속이 자손 수천 대에 이루어지도록 기억하신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2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와 언약궤를 다윗 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
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Then Solomon summoned to Jerusalem the elders of Israel, all
the heads of the tribes and the chiefs of the Israelite families,
to bring up the ark of the LORD's covenant from Zion, the City
of David.

- 3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And all the men of Israel came together to the king at the time
of the festival in the seventh month.

- 4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매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니라

When all the elders of Israel had arrived, the Levites took up
the ark,

- 5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
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and they brought up the ark and the Tent of Meeting and all the
sacred furnishings in it. The priests, who were Levites, carried
them up;

-
- 6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and King Solomon and the entire assembly of Israel that had gathered about him were before the ark, sacrificing so many sheep and cattle that they could not be recorded or counted,

- 7 제사장들이 여호와와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들었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The priests then brought the ark of the LORD's covenant to its place in the inner sanctuary of the temple, the Most Holy Place, and put it beneath the wings of the cherubim,

- 8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The cherubim spread their wings over the place of the ark and covered the ark and its carrying poles,

- 9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거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These poles were so long that their ends, extending from the ark, could be seen from in front of the inner sanctuary, but not from outside the Holy Place; and they are still there today.

- 10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There was nothing in the ark except the two tablets that Moses had placed in it at Horeb, where the LORD made a covenant with the Israelites after they came out of Egypt.

- 11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The priests then withdrew from the Holy Place. All the priests who were there had consecrated themselves, regardless of their divisions.

- 12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백이십 명이 함께 서 있다가

All the Levites who were musicians - Asaph, Heman, Jeduthun and their sons and relatives - stood on the east side of the altar, dressed in fine linen and playing cymbals, harps and lyres. They were accompanied by 120 priests sounding trumpets.

- 13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The trumpeters and singers joined in unison, as with one voice, to give praise and thanks to the LORD. Accompanied by trumpets, cymbals and other instruments, they raised their voices in praise to the LORD and sang: "He is good; his love endures forever." Then the temple of the LORD was filled with a cloud,

- 14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and the priests could not perform their service because of the cloud, for the glory of the LORD filled the temple of God.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2~10)

가히 위엄 있는 하나님의 전은 최고의 전성기로 손꼽히는 솔로몬의 시대를 가늠하게 합니다. 그가 집권한 지 넷째 해 시작된 건축은 칠 년에 걸쳐 지어지고 십일 년에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다음 해 일곱째 달 절기인 ‘초막절’에 법궤를 안치한 것으로 짐작됩니다(2~3절). 이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 장로부터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가 모였고, 다윗 성에 보관된 궤를 메어 오는 일이 시작됩니다(4~5절). 이날에 레위인은 다윗 시대에 옷사가 죽은 사건을 떠올리며 궤를 운반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을 법합니다(대상 13:9~10). 그들의 섬김에 이어 지성소의 두 그룹 날개 아래 궤를 안치하는 역할은 제사장에게로 넘어갑니다. 왕과 지도자, 온 회중이 여호와 앞에 겸비하여 제사를 드리는 모습에서 제법 성숙해진 믿음을 발견하게도 됩니다(6절). 이때에 이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궤 안에 든 두 언약판을 통하여 증언되며, 죄악 중에도 살리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받아드는 귀한 공동체 사이에도 흘러갑니다(10절).

2.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복됩니다(11~14).

옷사가 죽고 언약궤의 운반이 지체되는 동안, 다윗은 레위인과 제사장으로서 하여금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도록 하였습니다(대상 15:14). 그런데 놀랍게도 솔로몬 시대에 들어와서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제사장이 보입니다(11절). 흐르는 시간 사이로 성숙해진 이스라엘의 믿음이 또다시 발견되는 장면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맡겨진 직분에 따라서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자연스레 이어지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막힘이 없는 평화로운 관계를 느끼게 합니다. 다윗의 두 볼을 타고 눈물이 흐른 땅 위에 세워진 성전 앞에서 왕과 백성 사이에 울려 퍼진 노래의 첫 마디는 이렇습니다.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13절) 그 노래에 응답하시듯 성전을 가득 메운 하나님의 영광스런 임재는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평생에 걸쳐 희망하며 노래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14절). ‘여호와와 기이하심’ 곧 다함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한 해를 시작하며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수고를 감당하며 믿음 생활을 해 왔는지 돌아봅시다.
2.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며 말씀을 들려줍니다. 본문을 잠잠히 묵상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회복되기를 사모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보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19:56~60 ⁵⁶ 주님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에서 내 행복을 찾습니다. ⁵⁷ 주님, 주님은 나의 분깃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⁵⁸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간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⁵⁹ 내가 발걸음을 돌려 주님의 증거를 따라 갑니다. ⁶⁰ 내가 주저하지 않고, 서둘러 주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1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Elihu continued:

2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Bear with me a little longer and I will show you that there is more to be said in God's behalf.

3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I get my knowledge from afar; I will ascribe justice to my Maker.

4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Be assured that my words are not false; one perfect in knowledge is with you.

5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God is mighty, but does not despise men; he is mighty, and firm in his purpose.

6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He does not keep the wicked alive but gives the afflicted their rights,

7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He does not take his eyes off the righteous; he enthrones them with kings and exalts them forever,

8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But if men are bound in chains, held fast by cords of affliction,

9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he tells them what they have done - that they have sinned arrogantly.

10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He makes them listen to correction and commands them to repent of their evil.

11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If they obey and serve him, they will spend the rest of their days in prosperity and their years in contentment,

- 12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But if they do not listen, they will perish by the sword and die without knowledge.

- 13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The godless in heart harbor resentment; even when he fetters them, they do not cry for help.

- 14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They die in their youth, among male prostitutes of the shrines.

- 15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But those who suffer he delivers in their suffering; he speaks to them in their affliction.

- 16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 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He is wooing you from the jaws of distress to a spacious place free from restriction, to the comfort of your table laden with choice food.

- 17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But now you are laden with the judgment due the wicked; judgment and justice have taken hold of you.

-
- 18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 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Be careful that no one entices you by riches; do not let a large bribe turn you aside.

- 19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 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Would your wealth or even all your mighty efforts sustain you so you would not be in distress?

- 20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Do not long for the night, to drag people away from their homes,

- 21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 느니라

Beware of turning to evil, which you seem to prefer to affliction,

- 22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God is exalted in his power. Who is a teacher like him?

- 23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Who has prescribed his ways for him, or said to him, 'You have done wrong'?

24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Remember to extol his work, which men have praised in song.

25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All mankind has seen it; men gaze on it from afar.

26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햇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How great is God - beyond our understanding! The number of his years is past finding out.

27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He draws up the drops of water, which distill as rain to the streams;

28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the clouds pour down their moisture and abundant showers fall on mankind.

29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렛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Who can understand how he spreads out the clouds, how he thunders from his pavilion?

30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
치시고

See how he scatters his lightning about him, bathing the
depths of the sea,

31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This is the way he governs the nations and provides food in
abundance,

32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
사 과녁을 치시도다

He fills his hands with lightning and commands it to strike its
mark,

33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 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
을 아느니라

His thunder announces the coming storm; even the cattle make
known its approach,"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성경은 선부른 판단과 지나친 확신을 경계합니다(1~16).

33장부터 시작된 엘리후의 말이 34장, 35장을 걸쳐서 36장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라고 시작되는 각 장은 그가 얼마나 열변을 토하고 있었는지를 상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도 욥에게는 지식 없는 헛된 말을 그만하라고 다그치는 음성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흥미롭게도 2절에서는 엘리후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말이 남았다고 밝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주의 깊게 새겨듣기를 요구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행로에 대하여 줄줄이 이어 가는 그의 말의 요지는 의인이어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벌을 받겠고,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즐거운 해가 더해질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 다. 그러니 엘리후에 따르면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이자 가르침이기도 합니다(15절). 여기에는 고통당하는 욥을 향하여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삼가 돌아보고 행실을 바르게 하라는 일침이 따릅니다. 그렇다면 엘리후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2. 성경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말, 사고, 행동을 가르칩니다(17~33).

그동안은 하나님이 보호하셨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엘리후의 단호한 발언은,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인간은 감히 알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이후의 말과 거리감을 느끼게 합니다(26절). 그러니 까 엘리후는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자,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을 전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지만 욥은 그러하지 못하기에 말을 멈추라는 저돌적인 언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에는 엘리후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상이 담겨 있습니다. 말을 묶으시고, 말을 멈추게 하시고, 원리원칙에 따라 행동을 명령하시는 매서우신 하나님이 그가 고백하고 믿어오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통과 신음의 언어를 찬송과 경외의 언어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사이 인간이 내는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말은 중단시켜도 스스로는 말을 이어 가는 엘리후의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선부른 판단이 불러일으키는 지나친 확신은 관계를 허물기 쉽습니다. 들을수록 겸손해기를 가르치는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며 사는지 돌아봅시다.
2. 최근 나의 말, 생각,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나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길 기도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94:17~19,22 ¹⁷ 주님께서 나를 돕지 아니하셨다면, 내 목숨은 벌써 적막한 곳으로 가 버렸을 것이다.

¹⁸ 주님, 내가 미끄러진다고 생각할 때에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입니다. ¹⁹ 내 마음이 번거로울 때에는, 주님의 위로가 나를 달래 줍니다. ²²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내리는 비에서 발견한 사랑

글 전찬희 (집사)



약 한 달이 지난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하나님께 끝까지 함께하셨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문화선교부 임원단이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무엇보다 간절히 바란 것은 '좋은 날'이었다. 장소가 야외인 만큼 당일 기후에 따라 행사의 성공 여부가 결정지어지니 말이다.

교회 행사에 '성공 여부'라는 단어를 갖다붙이며, 성공의 의미는 또 무엇이나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문화선교부의 역할을 잘 해내나, 아니나 하는 '일'에 대한 평가권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 진정 음악을 통해서 교인과 교회 밖 이웃 주민을 아우르고 품어 보자는 따뜻한 하고도 깊은 뜻을 가졌기에, 성공이란 단어를 감히 붙여 보았다. 결과적으로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해 본다.

박준범 부장님 예하 모든 임원진은 맑은 바 역할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였고, 여러 차례 새벽 회의를 통해 수시 계획하고 점검하며 열심을 다했다. 그러나 아무리 준비와 노력이 완벽해도 당일 날씨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텐데, 하필 비 예보가 있는 주말이라 가슴을 졸이며 하루하루 카운트해 갔다. 그리고 역시나 예상대로 비가 온다는 기상 상황에 행사 시작 한 시간 전까지도 개최 여부를 논의하며 비가 와도 이행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음악인들은 음 하나하나 정확하게 다루는 사람들이라 무척 예민하고 섬세하며, 악기들 또한 습도와 기온에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럼에도 참 감사하게도 오케스트라 단원들 역시 환경은 불편하지만 감내하겠다고며 함께 뜻을 모아 주었다.

모든 일이 잘 풀리려는지, 우리를 초조와 불안과 긴장감에 휩싸이게 한 날씨는 김정진 담임목사님의 등장 이후부터 한풀 꺾이더니 관객들이 무리 없이 관람할 수 있는 컨디션이 되었다. (조금 오버해서)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할렐루야!

곳은 날씨에 음악회를 보려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 하는 마음에 상심이 되었고 몸도 무거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생각에 '그래! 힘을 내자! 최선을 다하자!'란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찾아오시는 이들을 맞이하였다.

비웃을 입고 우산을 받쳐 가며 음악에 집중하고 무대를 지켜봐 주는 아름다운 시선들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러한 관객들을 위해 더 열렬히 연주를 펼쳐 준 오케스트라 단원들, 독주자, 솔리스트들의 모습에 나도 모르는 사이 눈가가 축축이 젖어들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음악회였다. 진심으로 감사한 순간이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행사를 기다리고 원했다는 마음을 발견하며, 음악회를 통해서 더 많은 교인과 이웃 민들과 접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종교에 대한 불신과 선입견을 가진 분들과의 장벽을 허물고, 한 발짝 소망교회에 다가오는 계기를 만드는 데 일조한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도 될 법하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며 따르면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확신케 된다. 그날을 다시 떠올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12

—
주일

주일설교 노트

설교제목

성경본문

11/12~18

환호 소리 크게 울려 퍼진다. 하나님이 보좌에 오르신다. 나팔
소리 크게 울려 퍼진다. 주님이 보좌에 오르신다. (시 47:5)

Nov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3

욥기 37:1~24

월요일

오늘의 찬송 445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말씀 속으로

- 1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At this my heart pounds and leaps from its place.

- 2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Listen! Listen to the roar of his voice, to the rumbling that comes from his mouth,

- 3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He unleashes his lightning beneath the whole heaven and sends it to the ends of the earth,

- 4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 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After that comes the sound of his roar; he thunders with his majestic voice. When his voice resounds, he holds nothing back,

- 5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일을 행하시느니라

God's voice thunders in marvelous ways; he does great things beyond our understanding.

-
- 6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He says to the snow, 'Fall on the earth,' and to the rain shower,
'Be a mighty downpour.'

- 7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So that all men he has made may know his work, he stops
every man from his labor,

- 8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The animals take cover; they remain in their dens.

- 9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The tempest comes out from its chamber, the cold from the
driving winds.

- 10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열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The breath of God produces ice, and the broad waters become
frozen.

- 11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He loads the clouds with moisture; he scatters his lightning
through them.

- 12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At his direction they swirl around over the face of the whole earth to do whatever he commands them.

- 13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공해를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He brings the clouds to punish men, or to water his earth and show his love.

- 14 읊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Listen to this, Job; stop and consider God's wonders.

- 15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Do you know how God controls the clouds and makes his lightning flash?

- 16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Do you know how the clouds hang poised, those wonders of him who is perfect in knowledge?

-
- 17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You who swelter in your clothes when the land lies hushed
under the south wind,

- 18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can you join him in spreading out the skies, hard as a mirror
of cast bronze?

- 19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
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Tell us what we should say to him; we cannot draw up our case
because of our darkness,

- 20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거
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Should he be told that I want to speak? Would any man ask to
be swallowed up?

- 21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Now no one can look at the sun, bright as it is in the skies after
the wind has swept them clean,

- 22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Out of the north he comes in golden splendor; God comes in awesome majesty.

- 23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The Almighty is beyond our reach and exalted in power; in his justice and great righteousness, he does not oppress.

- 24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Therefore, men revere him, for does he not have regard for all the wise in heart?"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말하는 자와 침묵하는 자의 대조가 이루어집니다(1~20).

세상에서는 흔히 말하는 자가 힘 있는 자로 여겨집니다. 이 사실을 대변하기라도 하는 듯 설 새 없이 주장을 내세우는 엘리후와 다르게 유달리 욥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떠드는 자, 다른 한쪽은 침묵하는 자의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말하는 자 엘리후가 하나님의 권위를 빌려 욥을 제압하고자 합니다. 언뜻 보면 폭풍을 몰고 오시고, 찬바람을 몰고 오시고, 넓은 바다까지도 쾅쾅 얼어붙게 하시며, 구름 속에서 번갯불이 번쩍이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듯하지만 실상은 그런 하나님에게 한탄하는 욥을 향하여 그의 행실이 옳으냐고 반문을 던지는 셈입니다. 잠잠히 듣고 있는 욥을 억압하려는 엘리후의 감정은 마침내 최고조에 달합니다. “어디 한번 말씀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무지몽매하여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19절) 엘리후가 자신을 낮추는 듯하지만 그저 욥을 비아냥거릴 뿐입니다.

2. 욥의 침묵이 믿음을 대변합니다(22~24).

세상의 논리를 따라 말하는 자의 편에 서서 힘을 겨루는 엘리후를 보면서 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 궁금해집니다. 한편으로 우리 안에 드는 질문은 왜 그가 다른 세 사람들과의 대화와는 달리 침묵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욥이 침묵하게 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합니다. 최후 변론을 통하여 입장을 밝힌 욥은 이후로는 말을 멈추겠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노라고 나름대로 결심을 내렸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상황은 바뀐 것이 없지만, 그를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한 줄기 빛이 되어 마음 한편을 비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과 응답의 간격을 알고 믿는 자만이 욥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다고 가르치는 욥기서는 다시금 질문하게 만듭니다. 우리 자신은 지금 무엇을 희망하고 있는지, 희망하는 그것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믿음이 함께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유를 구실 삼아서 욥의 말을 억압하는 엘리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의 가정 혹은 일터 안에서 의사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2. 31장부터 지속되는 욥의 침묵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믿음을 보여 줍니다. 말에 말로 대응하지 않고 침묵으로 응답을 기다리는 그를 보면서 나는 어떻게 어려움을 대처하는지 돌아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30:10~12 ¹⁰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¹¹ 주님께서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옷을 갈아입히셨기에 ¹²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1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나

Then Solomon said, "The LORD has said that he would dwell in a dark cloud;

- 2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시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I have built a magnificent temple for you, a place for you to dwell forever."

- 3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While the whole assembly of Israel was standing there, the king turned around and blessed them,

- 4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Then he said: "Praise be to the LORD, the God of Israel, who with his hands has fulfilled what he promised with his mouth to my father David. For he said,

-
- 5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
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Since the day I brought my people out of Egypt, I have not
chosen a city in any tribe of Israel to have a temple built for my
Name to be there, nor have I chosen anyone to be the leader
over my people Israel.

- 6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But now I have chosen Jerusalem for my Name to be there,
and I have chosen David to rule my people Israel.’

- 7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위하
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My father David had it in his heart to build a temple for the
Name of the LORD, the God of Israel.

- 8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
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
이 좋도다

But the LORD said to my father David, ‘Because it was in your
heart to build a temple for my Name, you did well to have this
in your heart.

14 — 화

- 9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허리에서 나올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Nevertheless, you are not the one to build the temple, but your son, who is your own flesh and blood - he is the one who will build the temple for my Name.'

- 10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The LORD has kept the promise he made. I have succeeded David my father and now I sit on the throne of Israel, just as the LORD promised, and I have built the temple for the Name of the LORD, the God of Israel.

- 11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There I have placed the ark, in which is the covenant of the LORD that he made with the people of Israel."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솔로몬의 얼굴이 성전에서 백성으로 향합니다(1~3).

성전에는 여호와와 영광이 가득하고, 땅에서는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의 목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제 주님께서 계시라고, 내가 이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시실 곳입니다.”(2절) 아버지 다윗은 이 영광스런 광경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잠에 들어야 했다. 아들 솔로몬에 이르러서는 기적과도 같은 일을 눈으로 보며 입으로 시인하는 축복이 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게 됩니다. 백향목으로 만든 화려한 궁에 사는 그와 달리 회막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집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보다 큰 집, 곧 말씀으로 세워지는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은 아버지보다도 그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아 가며 이스라엘을 찾아 오시는 하나님을 활짝 맞이하고 있었을 듯합니다. 그래서인지 그가 얼굴을 돌려 온 회중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자 합니다(3절).

2.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4~11).

성전에서 얼굴을 돌려 사랑하는 백성을 바라보는 솔로몬 안에 여러 감정이 교차합니다. 보기만 해도 눈이 부시고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한편에는 기쁨과 설렘, 나름대로 뿌듯함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눈앞의 온 회중을 보는 순간, 마음에 확신이 들어섭니다. “주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4절) 그리고는 조상 모세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떠올리는가 하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다윗’을 구체적으로 호명하며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고백을 힘있게 선포합니다(5~6절). 특별한 지명과 이름이 언급되는 대목에서 말씀대로 성취하시며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진실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신실한 믿음을 살피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에 굳게 서서 아버지 다윗처럼 백성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1. 고개를 돌려 회중을 바라보는 솔로몬 안에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하나님과 맞닿아 살아간 솔로몬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완공된 성전 앞에서 솔로몬은 기쁨에 취하기보다 에벤에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민족의 앞날을 축복합니다. 백성의 미래를 열며 소망을 복돋아주는 고백에 비추어 배우자, 부모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06:1~2 ¹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²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일을 누가 다 알릴 수 있으며, 주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누가 다 찬양할 수 있으랴?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12 솔로몬이 여호와와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Then Solomon stood before the altar of the LORD in front of the whole assembly of Israel and spread out his hands,

- 13 솔로몬이 일찍이 놋으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다섯 규빗이요 너비가 다섯 규빗이요 높이가 세 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Now he had made a bronze platform, five cubits long, five cubits wide and three cubits high, and had placed it in the center of the outer court. He stood on the platform and then knelt down before the whole assembly of Israel and spread out his hands toward heaven,

- 14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He said: "O LORD, God of Israel, there is no God like you in heaven or on earth - you who keep your covenant of love with your servants who continue wholeheartedly in your way,

-
- 15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
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
니이다

You have kept your promise to your servant David my father;
with your mouth you have promised and with your hand you
have fulfilled it - as it is today.

- 16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
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네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
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Now LORD, God of Israel, keep for your servant David my
father the promises you made to him when you said, 'You shall
never fail to have a man to sit before me on the throne of Israel,
if only your sons are careful in all they do to walk before me
according to my law, as you have done.'

- 17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
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And now, O LORD, God of Israel, let your word that you
promised your servant David come true.

- 18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
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But will God really dwell on earth with men? The heavens,
even the highest heavens, cannot contain you. How much less
this temple I have built!

- 19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 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Yet give attention to your servant's prayer and his plea for mercy, O LORD my God. Hear the cry and the prayer that your servant is praying in your presence.

- 20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May your eyes be open toward this temple day and night, this place of which you said you would put your Name there. May you hear the prayer your servant prays toward this place.

- 21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Hear the supplications of your servant and of your people Israel when they pray toward this place. Hear from heaven, your dwelling place; and when you hear, forgive."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솔로몬의 지도력이 겸비한 믿음, 넘치는 지혜에 근원합니다(12~17).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고백한 솔로몬이 이번에는 뜻으로 만든 대 위에 서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합니다(12~13절). 그의 얼굴은 이스라엘 온 회중을 마주보고 있는 형태 그대로입니다. 그 모습으로 백성 앞에 선 왕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늘에나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이 없습니다.”(14절) 눈을 뜨고 보니 언제 이토록 많은 백성이 함께하고 있었는지 그조차도 놀란 모양입니다. 왕에게는 열매와도 다름없는 백성을 보면서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고, 심히 창대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러자 의지하고 붙잡을 것은 오직 하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확실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옵니다(16~17절). 이런 맥락에서 이스라엘에게 성전은 단지 건물로서의 예배 처소가 아니라 영원부터 그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은혜를 먼저 알고 송축한 솔로몬을 보면서 과연 지혜와 지식이 넘쳐난 자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2. 후히 주시고 길이 용납하시는 하나님!(18~21)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단지 이성적인 차원에 속하지 않습니다. 즉 솔로몬이 구하여 얻은 지혜와 지식의 결정적인 특징은 ‘분별력’에 달려 있었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그렇지 않은지를 헤아릴 줄 아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흥미롭게도 역대하에서는 지혜와 지식을 갖춘 자의 면모가 ‘듣고’ ‘간구하는’ 행위와 연결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듯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는 솔로몬과, 백성을 대신하여 간구하는 왕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21절)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에게 허락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듣는 대로 행치 못한 자가 있거든 스스로 낮추어 용서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대목에서 역설적이게도 반역의 길을 거둬들인 이스라엘의 미래를 엿보게 되지만, 믿음으로 돌아오는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함께 발견하게 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한 솔로몬의 행위와 성전을 연결하면서 그 의미를 묵상해 봅시다.
2. 솔로몬은 구한 것보다도 많은 것을 채워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인물입니다(1장). 이 은혜를 안 그 죄를 고백하고 비는 기도를 가르치며 가진 마음이 무엇인지 상상해 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30:1~8 ¹ 주님, 내가 깊은 물 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² 주님, 내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³ 주님,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⁴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⁵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⁶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⁷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⁸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22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하므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When a man wrongs his neighbor and is required to take an oath and he comes and swears the oath before your altar in this temple,

- 23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then hear from heaven and act. Judge between your servants, repaying the guilty by bringing down on his own head what he has done. Declare the innocent not guilty and so establish his innocence,

- 24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When your people Israel have been defeated by an enemy because they have sinned against you and when they turn back and confess your name, praying and making supplication before you in this temple,

-
- 25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then hear from heaven and forgive the sin of your people Israel and bring them back to the land you gave to them and their fathers,

- 26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When the heavens are shut up and there is no rain because your people have sinned against you, and when they pray toward this place and confess your name and turn from their sin because you have afflicted them,

- 27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옵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then hear from heaven and forgive the sin of your servants, your people Israel. Teach them the right way to live, and send rain on the land you gave your people for an inheritance,

- 28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갇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When famine or plague comes to the land, or blight or mildew, locusts or grasshoppers, or when enemies besiege them in any of their cities, whatever disaster or disease may come,

16 — 목

- 29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and when a prayer or plea is made by any of your people Israel - each one aware of his afflictions and pains, and spreading out his hands toward this temple -

- 30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then hear from heaven, your dwelling place. Forgive, and deal with each man according to all he does, since you know his heart (for you alone know the hearts of men),

- 31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so that they will fear you and walk in your ways all the time they live in the land you gave our fathers.”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22~27)

완공된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는 낙성식이 드려지기 전, 솔로몬의 긴 기도가 이어집니다. 그중에서도 21절은 ‘들으시고’ ‘들으시고’ ‘사하여’ 달라는 간구를 실으며 우리의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비춥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지혜 곧 분별력과 듣는 행위를 연결하는 역대하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들으시는 행위에 관한 묘사는, 참 지혜자이자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이에 22~23절에는 이웃에게 범죄한 자가 있거든 그 행위대로 살피시고 심판을 내려 달라는 간구가 나옵니다. 솔로몬 스스로 판결권을 가지는 왕이 되기보다 그 자리를 내어 드리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며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한 사람에 관한 기도가 있었다면 24~27절에는 백성을 향한 왕의 간구가 뒤따릅니다. 이들이 주께 범죄하여 전쟁에서 패하거나 혹은 하늘 문이 닫혀 극심한 자연재해를 겪게 되었을 때에 성전을 향해 비는 자가 있거든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빕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성전은 죄 사함과 용서, 하나님과의 참된 화해가 시작되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2. “이곳 성전을 향하여”(28~31)

구체적인 죄목을 언급하며 사함을 구하는 솔로몬의 기도는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집니다.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를 느끼게 하는 한편, 그만큼 주신 규례대로 바르게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의 책임을 일깨워 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가 마음의 돌이킴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근, 전염병, 성읍의 포위 등 그 무엇이든지간에 모든 상황에서 ‘이곳 성전을 향하여’ 빌며 기도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28~29절).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돌이켜 겸손히 간구하지 않는다면 외식적인 행위에 불과할 뿐이요, 하나님만이 베풀어 주시는 속죄의 용서를 값없이 여기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마음이 하나님께 합하여 바로 나아가길 원하는 지혜 있는 자는 땅 위에서 형통케 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성경은 그들을 두고 언제나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31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모든 것을 듣고 헤아리시는 하나님을 일깨우는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라는 명령을 담습니다(6:26). 혹시 내 안에 하나님과 하나되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까?
2. 중심의 돌이킴이 없는 기도와 삶은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겸손히 간구하도록 가르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 생활을 돌아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당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86:3~5 ³ 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⁴ 주님,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주님의 종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⁵ 주님,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역대하 6:32~42

오늘의 찬송 295 큰 죄에 빠진 나를

 말씀 속으로

- 32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As for the foreigner who does not belong to your people Israel but has come from a distant land because of your great name and your mighty hand and your outstretched arm - when he comes and prays toward this temple,

- 33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then hear from heaven, your dwelling place, and do whatever the foreigner asks of you, so that all the peoples of the earth may know your name and fear you, as do your own people Israel, and may know that this house I have built bears your Name.

- 34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When your people go to war against their enemies, wherever you send them, and when they pray to you toward this city you have chosen and the temple I have built for your Name,

35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then hear from heaven their prayer and their plea, and uphold
their cause.

36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
하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매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When they sin against you - for there is no one who does not
sin - and you become angry with them and give them over to
the enemy, who takes them captive to a land far away or near;

37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
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and if they have a change of heart in the land where they are
held captive, and repent and plead with you in the land of their
captivity and say, 'We have sinned, we have done wrong and
acted wickedly';

38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and if they turn back to you with all their heart and soul in the
land of their captivity where they were taken, and pray toward
the land you gave their fathers, toward the city you have
chosen and toward the temple I have built for your Name;

39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으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then from heaven, your dwelling place, hear their prayer and their pleas, and uphold their cause. And forgive your people, who have sinned against you.

40 나의 하나님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예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Now, my God, may your eyes be open and your ears attentive to the prayers offered in this place.

41 여호와 하나님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Now arise, O LORD God, and come to your resting place, you and the ark of your might. May your priests, O LORD God, be clothed with salvation, may your saints rejoice in your goodness.

42 여호와 하나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O LORD God, do not reject your anointed one. Remember the great love promised to David your servant."

6:42 다윗에게 베푸
신 은총
또는 다윗의 덕행을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솔로몬이 여호와와 도우심을 구합니다(32~39).

다윗은 예비된 축복을 바라보며 왕과 백성 모두가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기도했다면, 솔로몬은 이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길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비단 이스라엘의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도 주님의 크신 이름과 강한 손과 편 팔로 하신 일을 듣고, 먼 곳에서 이리로 와서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거든,”(32절) 이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지경을 깊이 헤아릴 줄 알았던 솔로몬의 면모가 드러나는 이때에 그의 기도 너머로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도 됩니다. 한편, 솔로몬은 ‘주께서 보내신 길’ 즉 하나님이 허락하시어 승리가 담보된 전쟁일지라도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기를 가르치는가 하면(34~35절), 적군에 사로잡힌 중에 마음과 뜻을 돌이키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37~39절).

2.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소서”(40~42)

모든 상황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가르치는 솔로몬의 지혜는 매 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권면을 담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눈앞의 성전도 불가능했을 것을 몸소 느끼고 경험한 까닭입니다. 그런데 본 단락에 들어오면서 그의 기도가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기 시작합니다. “주 하나님, 이제는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쉬실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깃든 궤와 함께 가십시오.”(41절) 그동안은 백성이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청하였다면, 이제는 높은 곳에 계시어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의 기쁨을 확신케 해 달라고 구합니다. 물론 말 그대로 성전에 간혀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근본이 상고에, 영원에 계신 하나님을 알았기에 이스라엘과 함께해 주시기를 겸손하게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 누구도 죽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42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솔로몬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를 품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답게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건네는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도 이웃을 축복하는 마음이 있는지 돌아봅시다.
2.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알았지만 입으로 직접 구하며 간청합니다.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의 교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65:2~5 ²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육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³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에,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⁴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⁵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 놀라운 행적으로 정의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므로 땅 끝까지, 먼 바다 끝까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1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Then the LORD answered Job out of the storm. He said:

- 2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Who is this that darkens my counsel with words without knowledge?

- 3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Brace yourself like a man; I will question you, and you shall answer me.

- 4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Where were you when I laid the earth's foundation? Tell me, if you understand.

- 5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펴웠는지 네가 아느냐

Who marked off its dimensions? Surely you know! Who stretched a measuring line across it?

-
- 6 그것의 주춧돌은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잇돌을 누가 놓았느냐

On what were its footings set, or who laid its cornerstone -

- 7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while the morning stars sang together and all the angels shouted for joy?

- 8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Who shut up the sea behind doors when it burst forth from the womb,

- 9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when I made the clouds its garment and wrapped it in thick darkness,

- 10 한계를 정하여 문빋장을 지르고

when I fixed limits for it and set its doors and bars in place,

- 11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when I said, "This far you may come and no farther; here is where your proud waves halt?"

- 12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Have you ever given orders to the morning, or shown the dawn its place,

- 13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 버린 일이 있었느냐

that it might take the earth by the edges and shake the wicked out of it?

- 14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The earth takes shape like clay under a seal; its features stand out like those of a garment,

- 15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The wicked are denied their light, and their upraised arm is broken,

- 16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Have you journeyed to the springs of the sea or walked in the recesses of the deep?

17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Have the gates of death been shown to you? Have you seen the gates of the shadow of death?

18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Have you comprehended the vast expanses of the earth? Tell me, if you know all this,”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질문하십니다(1~7).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1절). 장장 37장에 이르는 동안 네 사람 사이에서 뜨거운 갑론을박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말이 오고가며 혼란스러워진 분위기가 '폭풍우에 비유되며, 혼란을 잠재우실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어지러워질 대로 어지러워진 욥의 마음을 찌르며 축각을 곤두세우도록 합니다.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2~3절) 최후 변론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겠노라고 다짐한 욥이지만,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고통스런 현실이 여전히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런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놀랍게도 땅의 기초를 놓은 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땅의 기초를 놓고, 땅을 설계하고, 땅의 주춧돌을 놓은 분을 아느냐고 재차 물으시는 음성 앞에서 어느새 고난의 원인을 따져묻는 욥의 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보다 근원적인 질문이 그 앞에 놓입니다. ‘너는 누구이고, 나는 누구더냐.’

2. 욥이 욥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은!(8~18)

하나님의 등장과 뜻밖의 질문이 욥을 더욱 혼란에 빠트렸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신원하여 주실 하나님을 잔뜩 기대하며 나름대로 스스로의 옳음을 확인받고 싶었을 테지만, 돌아온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기대를 저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당장에 욥을 인정하시고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신 이유를 질문하게 되는 이때에 성경은 땅과 하늘, 바다와 육지, 궁창의 별과 해, 새를 창조하신 후에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떠올리도록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수수께끼 같은 인생의 문제를 들고 나와 항변하는 욥을 향하여 하나님은 도리어 그의 인생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반문하시며, 삶이 가지는 참된 의미를 묻고 계셨습니다. 고난이 없어서 삶이 의미 있거나 고난이 있어서 삶이 부정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으신 이를 알고 그분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욥은 욥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욥기서는 불의와 부당함보다도 무서운 것이 ‘불신’이라는 사실을 은밀하게 가르쳐 줍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하나님은 욥에게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으시고 '누구' 곧 '정체성'을 물으십니다. 말씀과 함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인 되신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2. 하나님의 등장은 이미 욥을 인정하시는 행위이지만 그보다 근원적인 차원으로 인도하며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니다. 여러 기도 제목 앞에서 내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우선하고 있는지를 돌아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86:1~4 ¹ 주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² 그러나 나는 신실하오니, 나의 생명을 지켜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니,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종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³ 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⁴ 주님,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주님의 종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글 이순기 (부목사)



오랜만에 중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언제 봐도 반가운 친구들이지만 생업이 바쁘고, 저는 목회자가 되었고, 또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만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나 살아가는 이야기, 자녀 키우는 이야기, 부모님 이야기, 교회 이야기 등 대화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한 친구가 바라보며 “친구야, 행복하냐?” 물었습니다. “뭐야 갑자기. 그러는 너는 행복하냐?” 되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어이가 없었는지 서로 막 웃었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갑자기 받으면 머뭇거리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복잡한 고민들이 있고, 넘어가야 할 언덕이 있고, 풀어야 할 매듭이 있습니다. 여기에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더해질 경우, 우리는 행복한지를 묻는 질문에 멈칫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난 행복하지.”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을 보면, 과연 진실일까 한 번 더 바라보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은 “당신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자기개발서들이 서점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책을 좀 살펴보니 ‘마음을 잘 붙들어야 한다.’ ‘현실을 개선하려는 의식을 지녀야 한다. 그것이 결국 자신을 위한 일이 된다.’ 등의 이야기로 우리를 격려하고 다독여 줍니다. 행복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주인 의식을 지니고 살아야 한다.’라는 설득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입니다. 이대로만 잘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무엇인가 허전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 눈에 선한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과연 인간의 노력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방법으로 선한 것을 이루어 낼 수 있을까요? 전도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 7:14)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전 9:1)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에 대한 해답이 아니라, 도무지 미래의 일을 알 수 없다고 전도서는 말합니다. 인간이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행복할 것인지 불행할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를 보면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삶에 대해 접근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변동이 많고 불확실한 것이 많아서 행복을 위한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확실히 잘 모릅니다. 이때,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역설적인 접근을 해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에 확실하신, 살아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다시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 세상의 온갖 맛집을 다 돌아다닐 수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은 사실 엄마가 해 주시는 집밥입니다. 엄마의 된장국이 최고인 이유는, 그 된장국에 엄마의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사랑과 정성으로 지어진 집밥처럼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가까이에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인생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함께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그분께 감사할 때, 우리의 행복을 위한 새로운 발걸음이 시작될 것입니다.

19

—
주일

주일설교 노트

설교제목

성경본문

11/19~25

그러나 주님, 주님은 영원히 보좌에서 다스리시며, 주님의 이름
은 대대로 찬양을 받을 것입니다. (시 102:12)

Nov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말씀 속으로

- 19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나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나

“What is the way to the abode of light? And where does darkness reside?

- 20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Can you take them to their places? Do you know the paths to their dwellings?

- 21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햇수가 많음이니라

Surely you know, for you were already born! You have lived so many years!

- 22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Have you entered the storehouses of the snow or seen the storehouses of the hail,

23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 두었
노라

which I reserve for times of trouble, for days of war and battle?

24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What is the way to the place where the lightning is dispersed,
or the place where the east winds are scattered over the earth?

25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개 길을 내
어 주었느냐

Who cuts a channel for the torrents of rain, and a path for the
thunderstorm,

26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to water a land where no man lives, a desert with no one in it,

27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흠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to satisfy a desolate wasteland and make it sprout with grass?

28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Does the rain have a father? Who fathers the drops of dew?

29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From whose womb comes the ice? Who gives birth to the frost
from the heavens

30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when the waters become hard as stone, when the surface of
the deep is frozen?

31 네가 묘성을 매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Can you bind the beautiful Pleiades? Can you loose the cords
of Orion?

32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Can you bring forth the constellations in their seasons or lead
out the Bear with its cubs?

33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Do you know the laws of the heavens? Can you set up God's
dominion over the earth?

34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덮이게 하
겠느냐

Can you raise your voice to the clouds and cover yourself with
a flood of water?

35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
이다 하게 하겠느냐

Do you send the lightning bolts on their way? Do they report
to you, 'Here we are'?

36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
구냐

Who endowed the heart with wisdom or gave understanding
to the mind?

37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Who has the wisdom to count the clouds? Who can tip over the
water jars of the heavens

38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when the dust becomes hard and the clods of earth stick
together?

39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Do you hunt the prey for the lioness and satisfy the hunger of the lions

40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when they crouch in their dens or lie in wait in a thicket?

41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Who provides food for the raven when its young cry out to God and wander about for lack of food?"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하나님이 욱을 바라보십니다(19~33).

1절부터 41절에 이르는 하나님의 질문 안에는 흥미롭게도 그분의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땅의 기초를 놓으신 날에 땅을 바라보신 눈동자는 이내 하늘에 올라가서 별자리를 수놓고, 하늘의 법칙을 세우고, 구름과 번개를 운행합니다. 땅에서 하늘로의 시선 이동이 있다면, 광명이 있는 곳에서 흑암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시선도 함께합니다(19절). 새벽과 밤, 시작과 마침, 생명과 죽음을 두루 살피시는 눈동자를 알리는 듯한 이 구절에서 만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 마음을 낮추며 겸손함을 간구하게 됩니다. 한편으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나 엘리후와 같지 않은 하나님의 대화 방식을 자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네 등장인물의 대화는 각자의 옳음을 주장하며 스스로를 높이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질문은 자연스레 경외감을 불러일으켰고, 결정적으로는 사탄과 자신을 구별하셨습니다. 땅에서 맺히는 이 슬방울도 살피시는 정확무오하신 그분의 눈동자는 욱의 소유가 아니라 지쳐 쓰러진 '욕'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2. 구하는 자에게 복이 임합니다(34~41).

욕의 현실은 그야말로 폭풍우 사이를 지나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를 보며 느껴지는 감정 역시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희노애락이 가득한 인생을 살다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지 못한 역경과 환난을 경험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욱과 네 사람 사이의 대화 끝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등장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숙명을 여실히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욱기서의 메시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한계를 가진 인간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그와 함께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그 사랑이 배가 고파 허우적거리는 새끼 까마귀와, 먹이를 물어다 주는 어미 까마귀에 빗대어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슬한 배신, 피할 수 없는 고통, 거스를 수 없는 죽음에 둘러싸인 중에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려 주시고자 폭풍우 속에 계신 하나님을 욱은 볼 수 없었지만, 폭풍우 속에서 욱을 보시는 하나님이 전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인생의 참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경외가 싹틀 때 깨달아집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봅시다.

1.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말씀을 묵상하며 두려움과 근심, 걱정거리가 있다면 내어 드리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하루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욱기서는 불신과 불평의 언어를 신뢰와 경외의 언어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나의 말 가운데는 어떤 고백이 담겨지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19:73~77 ⁷³ 주님께서 손으로 몸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세우셨으니, 주님의 계명을 배울 수 있는 총명도 주십시오. ⁷⁴ 내가 주님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기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기뻐할 것입니다. ⁷⁵ 주님, 주님의 판단이 옳은 줄을, 나는 압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주님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⁷⁶ 주님의 종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⁷⁷ 주님의 법이 나의 기쁨이니, 주님의 긍휼을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새 힘을 얻어 살 것입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역대하 7:1~10

오늘의 찬송 278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말씀 속으로

- 1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When Solomon finished praying, fire came down from heaven and consumed the burnt offering and the sacrifices, and the glory of the LORD filled the temple.

- 2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The priests could not enter the temple of the LORD because the glory of the LORD filled it.

- 3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When all the Israelites saw the fire coming down and the glory of the LORD above the temple, they knelt on the pavement with their faces to the ground, and they worshiped and gave thanks to the LORD, saying, "He is good; his love endures forever."

4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Then the king and all the people offered sacrifices before the LORD.

5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이만 이천 마리요 양이 십이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의 낙성식을 행하니라

And King Solomon offered a sacrifice of twenty-two thousand head of cattle and a hundred and twenty thousand sheep and goats. So the king and all the people dedicated the temple of God.

6 그때에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 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 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The priests took their positions, as did the Levites with the LORD's musical instruments, which King David had made for praising the LORD and which were used when he gave thanks, saying, "His love endures forever." Opposite the Levites, the priests blew their trumpets, and all the Israelites were standing.

7 솔로몬이 또 여호와 의 전 앞뜰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듯 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Solomon consecrated the middle part of the courtyard in front of the temple of the LORD, and there he offered burnt offerings and the fat of the fellowship offerings, because the bronze altar he had made could not hold the burnt offerings, the grain offerings and the fat portions.

- 8 그때에 솔로몬이 칠 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였더니

So Solomon observed the festival at that time for seven days, and all Israel with him - a vast assembly, people from Lebo Hamath to the Wadi of Egypt.

- 9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칠 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칠 일 동안 지키니라

On the eighth day they held an assembly, for they had celebrated the dedication of the altar for seven days and the festival for seven days more.

- 10 일곱째 달 제이십삼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 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On the twenty-third day of the seventh month he sent the people to their homes, joyful and glad in heart for the good things the LORD had done for David and Solomon and for his people Israel.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1~3).

성전의 낙성식을 앞두고 드린 솔로몬의 기도는 성전의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범죄하여 패역한 길을 걸을지라도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비는 자가 있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달라는 간구는, 사실상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가로막힌 답을 허무는 성전을 바라보게 합니다. 즉 평생에 걸쳐 이스라엘이 힘써 사모해야 할 것이 여호와와의 인자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길이 성전을 통하여 예루살렘 땅에 열렸으니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솔로몬은 구원의 시작점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히 이스라엘을 기억해 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 후에 놀랍게도 1절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을 살랐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올바르게 중재한 왕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완전히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날에 성전을 가득 메운 여호와와 영광과 옹드려 경배하는 이스라엘 모습이 성전의 의미를 또다시 새기게 합니다.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3절)

2. 제사를 마친 후에 이스라엘이 흠어들입니다(4~10).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다함께 기뻐하며 제사를 드린 그날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을 보여 줍니다. 일반적으로 심판을 상징하는 불이 제물을 사르며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주니,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기로 결단하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잠잠히 머물도록 합니다. 낙성식에 바친 제물이 얼마나 많았는지도 함께 전해집니다(5절). 늦 제단도 작아서 성전 앞뜰까지 구분하여 준비할 만큼 풍성했던 제물은, 숯한 전쟁을 치루었던 다윗 시대를 지나 솔로몬 시대에 왕과 백성이 맞이한 평화를 실감케 합니다.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라는 표현은 엄청난 영역의 확장을 이룬 이스라엘의 부국강병함을 알리는 동시에 그 근원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절기’ 곧 ‘초막절’을 지키며 은혜에 감사한 믿음이 함께했음을 암시합니다(8절). 7일의 초막절과 다음 날 열린 성회 끝에 낙성식이 마무리되고, 백성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 흐뭇한 마음으로 장막에 돌아갑니다(10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보시다.

1. 심판을 상징하는 불이 구원의 상징으로 변화되는 말씀을 살피면서 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 보시다.
2. 하나님이 성전 안에 임하시자 이스라엘도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지시한 솔로몬의 리더십을 살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나와 우리 가정 안에 우선되고 있는지 돌아보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보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45:7~8,17~18 ⁷ 사람들은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주님의 의를 노래할 것입니다. ⁸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¹⁷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의롭다.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 ¹⁸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11 솔로몬이 여호와와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와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When Solomon had finished the temple of the LORD and the royal palace, and had succeeded in carrying out all he had in mind to do in the temple of the LORD and in his own palace,

- 12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the LORD appeared to him at night and said: "I have heard your prayer and have chosen this place for myself as a temple for sacrifices,

- 13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When I shut up the heavens so that there is no rain, or command locusts to devour the land or send a plague among my people,

-
- 14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if my people, who are called by my name, will humble themselves and pray and seek my face and turn from their wicked ways, then will I hear from heaven and will forgive their sin and will heal their land,

- 15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예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Now my eyes will be open and my ears attentive to the prayers offered in this place,

- 16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I have chosen and consecrated this temple so that my Name may be there forever. My eyes and my heart will always be there,

- 17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As for you, if you walk before me as David your father did, and do all I command, and observe my decrees and laws,

- 18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I will establish your royal throne, as I covenanted with David your father when I said, 'You shall never fail to have a man to rule over Israel.'

- 19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But if you turn away and forsake the decrees and commands I have given you and go off to serve other gods and worship them,

- 20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then I will uproot Israel from my land, which I have given them, and will reject this temple I have consecrated for my Name. I will make it a byword and an object of ridicule among all peoples.

- 21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And though this temple is now so imposing, all who pass by will be appalled and say, 'Why has the LORD done such a thing to this land and to this temple?'

22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
것들을 경배하여 섬기므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
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People will answer, 'Because they have forsaken the LORD, the
God of their fathers, who brought them out of Egypt, and have
embraced other gods, worshiping and serving them - that is
why he brought all this disaster on them.'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11~18)

은혜 중에 낙성식을 마친 솔로몬의 심경이 기록됩니다. “솔로몬이 심중에 여호와와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11절) 실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인데 성경은 그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분의 뜻을 알리시며 동일한 소원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아름답고도 신비한 연합입니다. 그렇게 ‘다 이루었다’ 생각이 든 밤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하십니다.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 낯설지만도 않은 게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솔로몬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스스로를 낮추었고, 간절히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의 기도를 들으시며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14절).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닿은 땅에는 날마다 구원이 일어나는 은혜가 임합니다(15~18절).

2. 하나님은 길을 열어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입니다(19~22).

하나님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도 이스라엘이 믿지 못한다면 그들의 것이 될 수 없겠고, 은혜를 받았어도 하나님을 망각하고 의의 길에서 떠나게 된다면 하루아침에 조소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19~20절). 한마디로 완공된 성전과 그 앞에서 엎드려 간구한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갈 수 없는 이스라엘의 실존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떠나실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를 함께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14절에 기록되었듯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여호와와 얼굴을 찾는 자가 있다면 죄를 용서하고 땅을 고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에게 이미 열린 생명의 길을 확신케 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금 붙들며 바벨론에 돌아온 귀환 공동체의 마음은 어떠하였을지, 여전히 사로잡힌 땅 바벨론에 남아 있는 유다 백성의 마음이 어떠하였을지 떠올려 봅시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소원으로 동일화시킬 만큼 솔로몬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연합이 나, 가정,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2. 하나님이 여신 생명의 길을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28:1~2,9 ¹ 반석이신 나의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귀를 막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입을 다무시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같이 될까 두렵기만 합니다. ² 주님의 지성소를 바라보며, 두 손을 치켜들고 주님께 울부짖을 때에,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⁹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영원토록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그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1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이십 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At the end of twenty years, during which Solomon built the temple of the LORD and his own palace,

- 2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 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Solomon rebuilt the villages that Hiram had given him, and settled Israelites in them.

- 3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Solomon then went to Hamath Zobah and captured it,

- 4 또 광야에서 다드몰을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He also built up Tadmor in the desert and all the store cities he had built in Hamath,

5 또 윗 벰호론과 아랫 벰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빋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He rebuilt Upper Beth Horon and Lower Beth Horon as fortified cities, with walls and with gates and bars,

6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as well as Baalath and all his store cities, and all the cities for his chariots and for his horses - whatever he desired to build in Jerusalem, in Lebanon and throughout all the territory he ruled.

7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남아 있는 모든 자

All the people left from the Hittites, Amorites, Perizzites, Hivites and Jebusites (these peoples were not Israelites),

8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that is, their descendants remaining in the land, whom the Israelites had not destroyed - these Solomon conscripted for his slave labor force, as it is to this day.

8:2

열왕기상은 솔로몬이 후람에게 갈릴리 지역의 성읍 스물 곳을 주었다고 기록한다면(왕상 9:11-13), 역대하는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 준 성읍을 언급한다. 상반되는 진술에 관하여 학자들은 한쪽의 이해를 따르기보다는 두 사람 사이에 성읍을 주고 받은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 9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But Solomon did not make slaves of the Israelites for his work; they were his fighting men, commanders of his captains, and commanders of his chariots and charioteers,

- 10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이백오십 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They were also King Solomon's chief officials - two hundred and fifty officials supervising the men,

- 11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와 그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Solomon brought Pharaoh's daughter up from the City of David to the palace he had built for her, for he said, "My wife must not live in the palace of David king of Israel, because the places the ark of the LORD has entered are holy."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아버지의 헌신에 아들이 열매를 맺습니다(1~6).

솔로몬의 죽음을 알리며 그에 관한 말씀이 매듭지어지는 9장에 이르기까지, 1~7장은 성전에 관한 말씀이 주를 이룹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이스라엘을 생각할 수 없듯이 성전과 분리된 솔로몬의 삶은 이해불가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강조는 여호와와 전과 궁궐을 짓는 데 걸린 시간을 알리는 1절을 통해서도 확연히 느껴집니다. 성전을 짓기로 결심하고, 결심한 대로 넷째 해에 건축을 시작한 솔로몬의 행적이 마침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2:1; 3:2).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성심을 다한 왕과 백성의 순종을 느끼게 되는 한편, 이것이 그 시대에 부요한 축복이 허락된 이유였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집권한 시기에 이스라엘의 영토가 어느 정도로 확장되었는지를 기술하며 세력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확장된 세력을 요새화하여 안전을 꾀한 지혜를 함께 전하여 줍니다(3~6절). 싸우고, 싸우고, 싸워야 했던 다윗과 다르게 ‘건축하고’, ‘건축하고’, ‘건축하는’ 솔로몬의 삶 속에서 희생 없이 얻을 수 없는 열매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2. 역대기 저자의 의도를 고민해 봅니다(7~11).

수차례 등장하는 표현 ‘건축하고’는 성전과 궁궐을 제외하고도 활발하게 일어난 건축 활동을 암시합니다. 이에 따라 본 단락은 작업에 소집된 인력에 관하여 자연스레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인력 중에는 ‘역꾼’ 소위 ‘노예’로 등용된 자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땅에 남아서 정착하던 가나안 족속의 이방인들로 보여집니다(7~8절). 이와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가 아닌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으로 등용되어 역할을 맡게 됩니다(9~10절). 이스라엘을 우선하는 솔로몬의 정책은 바로의 딸이 거거하는 궁을 짓는 데에도 적용됩니다.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다윗 성에 안치된 언약궐과 이방의 여인 바로의 딸이 함께 있지 못하도록 거거할 궁을 따로 건축한 셈입니다(11절). 물론 이방 여인을 받아들인 솔로몬의 행적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열왕기상 11장에 비하면 다소 긍정적인 평가가 담겨 있는 이 대목에서 역대기 저자의 의도가 무엇이었을지 질문하게 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모세 시대의 성막과 솔로몬 시대의 성전, 다윗의 언약과 솔로몬의 축복을 연결하는 역대하의 흐름은 영원하신 말씀을 따라 시대마다 다양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암시합니다. 내가 있기까지 함께한 믿음의 동역자를 생각하며 위하여 기도합니다.
2. ‘성전’과 ‘솔로몬의 기도’를 연결시키는 역대하는 솔로몬의 과오를 생략하고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주로 전합니다. 이 말씀이 귀한 공동체에게 어떻게 다가갔을지 상상해 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보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18:25~28 ²⁵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²⁶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는 복이 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였다. ²⁷ 주님은 하나님이니,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다. 나뭇가지로 축제의 단을 장식하고, 제단의 뿔도 꾸며라. ²⁸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니, 내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 기리겠습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12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와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On the altar of the LORD that he had built in front of the portico, Solomon sacrificed burnt offerings to the LORD,

- 13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일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according to the daily requirement for offerings commanded by Moses for Sabbaths, New Moons and the three annual feasts -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the Feast of Weeks and the Feast of Tabernacles,

- 14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In keeping with the ordinance of his father David, he appointed the divisions of the priests for their duties, and the Levites to lead the praise and to assist the priests according to each day's requirement. He also appointed the gatekeepers by divisions for the various gates, because this was what David the man of God had ordered.

15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They did not deviate from the king's commands to the priests or to the Levites in any matter, including that of the treasuries.

16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All Solomon's work was carried out, from the day the foundation of the temple of the LORD was laid until its completion. So the temple of the LORD was finished.

17 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Then Solomon went to Ezion Geber and Elath on the coast of Edom,

18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사백오십 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And Hiram sent him ships commanded by his own officers, men who knew the sea. These, with Solomon's men, sailed to Ophir and brought back four hundred and fifty talents of gold, which they delivered to King Solomon.

8:17 에시온게벨

'가인의 잔등'이라는 의미를 가진 '에시온게벨'은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 위치한 중요한 항구 도시였다. 이곳을 장악함으로써 솔로몬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은 막대했다.

8:18 오빌

아라비아 지역으로 추정되는 오빌은 오늘날 '아프리카의 뿔'이라고 불리는 아라비아 남서쪽 지역에 해당된다.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12~15)

이방의 여인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짙은 언급 뒤로 순식간에 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의 모습이 등장합니다(12절). 심지어는 그가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매일의 ‘일과’ 곧 하루를 단위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해를 거듭하며 정한 ‘절기’에 맞추어 제사를 드렸다고 상세하게 밝혀줍니다(13절). 나아가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직분을 맡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흔들림이 없도록 지시한 사실이 전해집니다(14절). 이렇듯 솔로몬과 관련하여 번제를 드리는 모습이 연결되는 흐름은 역설적으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형통하게 살아간 그조차도 인간의 형질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점을 시사해 줍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지만 그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크고 깊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순간, 간음한 여인에게 죄 없는 자가 있거든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문득 떠오르며 십자가의 은혜를 잠잠히 묵상하게 됩니다.

2. “여호와와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16~18)

최고의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라도 죄인과 의인의 간극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향하여 역대기 저자는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남깁니다. “이렇게 주님의 성전 기초가 놓인 날부터 시작하여 그 공사가 완성되기까지, 솔로몬의 모든 건축 공사가 잘 진행되었으니 주님의 성전이 비로소 완공되었다.”(16절) 성전과는 분리될 수 없는 솔로몬의 생애를 떠올려 볼 때에 그의 삶에 대한 평가와도 같은 이 구절은 결점투성이인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모두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묵상하게 합니다. 여호와와 다함없는 사랑은 솔로몬의 명성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도록 인도하셨고, 이방의 신복들이 뱃길을 넘는 고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금 사백오십 달란트를 전하는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17~18절). 우리는 그의 명성 위로 땅의 경계를 넘나들며 두루 미친 여호와와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것은 순종의 제사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봅시다.

1. 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에 관한 강조는 예배를 통하여 영혼이 소생하고 땅이 회복되는 역사를 기대하게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나, 가정,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진실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2. 결점 없이 완공된 성전처럼 하나님은 나를 온전한 형상으로 구원해 가십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하루를 보냅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보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19:55~57 ⁵⁵ 주님, 내가 밤에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법을 지킵니다. ⁵⁶ 주님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에서 내 행복을 찾습니다. ⁵⁷ 주님, 주님은 나의 분깃,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1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Do you know when the mountain goats give birth? Do you watch when the doe bears her fawn?”

- 2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Do you count the months till they bear? Do you know the time they give birth?

- 3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They crouch down and bring forth their young; their labor pains are ended.

- 4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 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Their young thrive and grow strong in the wilds; they leave and do not return.

- 5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의 매인 것을 풀었느냐

Who let the wild donkey go free? Who untied his ropes?

-
- 6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I gave him the wasteland as his home, the salt flats as his habitat,

- 7 들나귀는 성읍에서 지껄이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He laughs at the commotion in the town; he does not hear a driver's shout,

- 8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He ranges the hills for his pasture and searches for any green thing,

- 9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네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Will the wild ox consent to serve you? Will he stay by your manger at night?

- 10 네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썩레를 끌겠느냐

Can you hold him to the furrow with a harness? Will he till the valleys behind you?

- 11 그것이 힘이 세다고 네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네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Will you rely on him for his great strength? Will you leave your heavy work to him?

- 12 그것이 네 곡식을 집으로 실어 오며 네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위탁하겠느냐

Can you trust him to bring in your grain and gather it to your threshing floor?

- 13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The wings of the ostrich flap joyfully, but they cannot compare with the pinions and feathers of the stork.

- 14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She lays her eggs on the ground and lets them warm in the sand,

- 15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unmindful that a foot may crush them, that some wild animal may trample them,

- 16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She treats her young harshly, as if they were not hers; she cares not that her labor was in vain,

- 17 이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for God did not endow her with wisdom or give her a share of good sense.

-
- 18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
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Yet when she spreads her feathers to run, she laughs at horse
and rider,

- 19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흘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
느냐

Do you give the horse his strength or clothe his neck with a
flowing mane?

- 20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엄스러운 콧
소리가 두려우니라

Do you make him leap like a locust, striking terror with his
proud snorting?

- 21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He paws fiercely, rejoicing in his strength, and charges into
the fray,

- 22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
지 아니하니

He laughs at fear, afraid of nothing; he does not shy away from
the sword,

- 23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The quiver rattles against his side, along with the flashing spear and lance.

- 24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
하고

In frenzied excitement he eats up the ground; he cannot stand still when the trumpet sounds.

- 25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헹헹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At the blast of the trumpet he snorts, 'Aha!' He catches the scent of battle from afar, the shout of commanders and the battle cry.

- 26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네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Does the hawk take flight by your wisdom and spread his wings toward the south?

- 27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
찌 네 명령을 따름이냐

Does the eagle soar at your command and build his nest on high?

28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뽕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He dwells on a cliff and stays there at night; a rocky crag is his
stronghold.

29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From there he seeks out his food; his eyes detect it from afar.

30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
니라

His young ones feast on blood, and where the slain are, there
is he.”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생명의 신비는 '함께할' 때 발견됩니다(1~18).

만물을 배정 삼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몇 가지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먼저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인생은 비로소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욥이 욥으로서, 우리가 우리로서 참되이 존재할 수 있는 근원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시작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을 깨우쳐 주시고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둘째로 욥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놓쳐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해 욥의 친구들은 미처 갖지 못한 것 곧 생명을 귀하게 대하는 마음입니다. 만삭이 되어 새끼를 낳는 암사슴, 강하게 자라나는 새끼 염소, 자유롭게 풀린 들나귀의 모습이 상상만으로도 신비를 불러일으킨다면, 고난 중의 사람이 겪는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는 행위는 결국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과 같습니다.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서의 아름다운 연합, 이것이 욥기서가 전하는 또 다른 메시지입니다.

2.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소중합니다(19~30).

안타깝게도 욥과 나머지 네 사람 간에는 참된 연합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사람을 주목하시며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시는데, 연약한 피조물끼리는 왜 그러지 못하느냐는 일종의 따라운 가르침이 담겨 있는 듯도 합니다. 욥기서에 나오는 등장인물 서로 간에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기보다 말보다 빨리 뛰라고 착각하는 타조마냥 제각기 옳은 소리를 내며 힘을 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지고 제각각의 색깔을 내는 피조 세계를 펼치시며, 서로가 하나될 때에 비로소 모두가 살게 된다는 놀라운 섭리를 보여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겨 두신 삶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우열을 가리며 살고자 하는 본능이 지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세계는 각자가 살고 모두가 살며 지으신 이를 송축하는 놀라운 나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봅시다.

1.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회화화된 타조와 어미 까마귀의 대조되는 모습을 보면서 욥과 네 친구 그리고 나는 어떠한지 돌아봅시다.

2.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가정과 함께하는 동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02:19~22,27~28 ¹⁹ 주님께서 성소 높은 곳에서 굽어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살피보셨다. ²⁰ 갇힌 사람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죽게 된 사람들을 풀어 놓아 주셨다. ²¹ 시온에서 주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고, 예루살렘에서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²² 못 백성이 다 모이고, 못 나라가 함께 주님을 섬길 것이다. ²⁷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주님의 햇수에는 끝이 없습니다. ²⁸ 주님의 종들의 자녀는 평안하게 살 것이며, 그 자손도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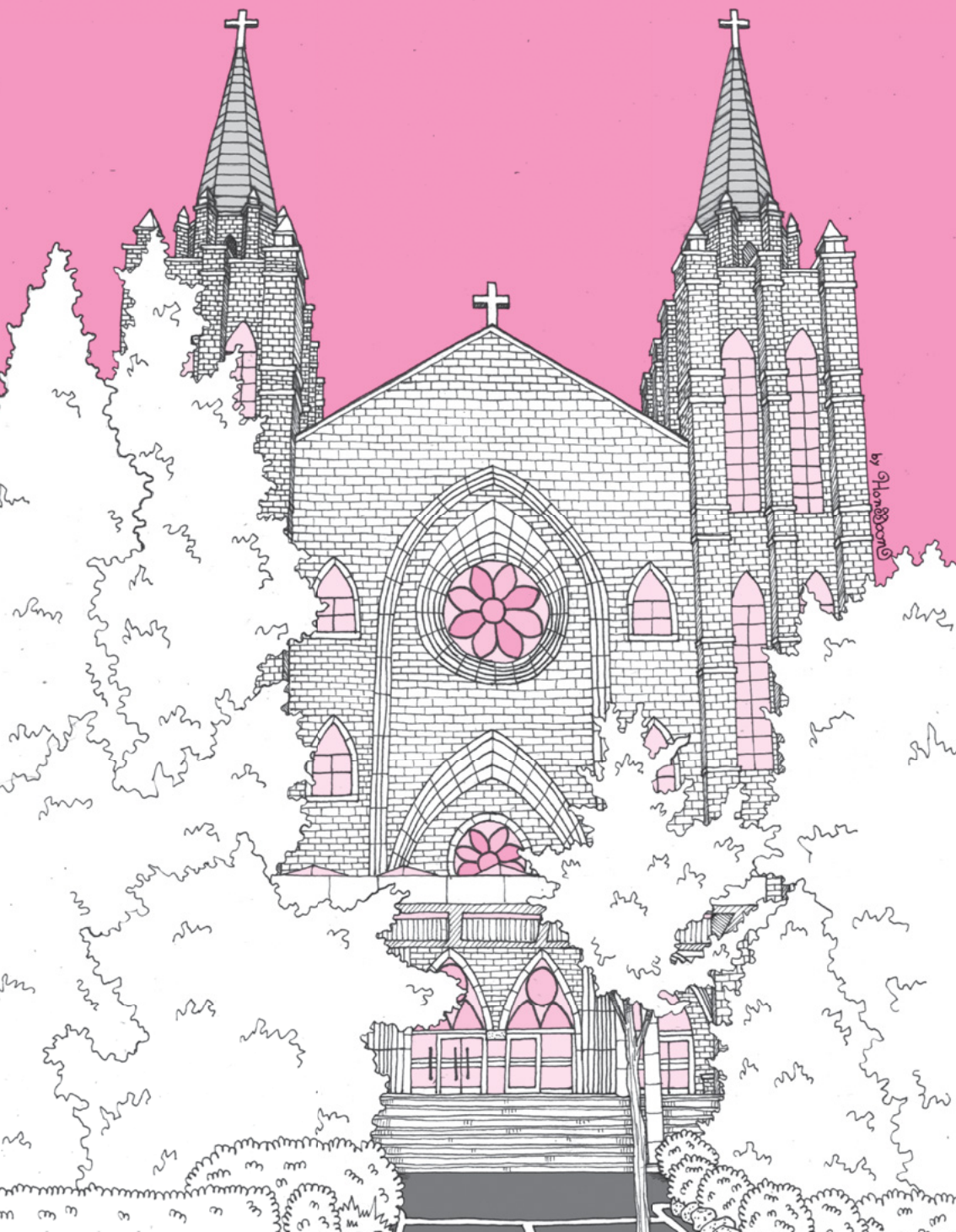
대전제일감리교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남로 4

1904년 세워진 대전역과 경부선 철도 공사가 시작되고, 여러 선교사들이 대전에 방문하기 시작했다. 1906년 샤프 선교사가 회덕현 오남면 대동리에 신앙공동체를 만들었으나, 그는 1906년 3월에 순직한다. 1908년 그의 아내인 엘리스 여사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대동리교회를 재정비하고 예배당 건물 구입을 지원한다. 그리고 1917년 대전 최초의 서양식 침탑예배당을 건축하고 '안동교회'라 불리우게 된다. 1942년 자리를 옮겨 '안명도기념예배당' 건축하고 '대전제일교회'로 명칭을 변경한다. 그러나 '안명도기념예배당'은 6·25전쟁으로 소실되고 1958년 대전 원동에 새 예배당을 건축했다. 2001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여 지금의 예배당을 세우게 되었다.

- 대전제일감리교회 홈페이지(www.firstchurch.or.kr) 참고 -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편, <믿음의 흔적을 찾아_한국의 기독교 유적> 참고 -

홍성찬(홍군) | 예수쟁이고 겁쟁이고 가난뱅이고 복을 전하는 자유로운 장들뱅이 www.honggoon.net



26

—
주일

주일설교 노트

설교제목

성경본문

11/26~12/2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릅니다. (시 123:1)

Nov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욥기 40:1~24

오늘의 찬송 86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말씀 속으로

1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The LORD said to Job:

2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Will the one who contends with the Almighty correct him? Let him who accuses God answer him!”

3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Then Job answered the LORD:

4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랴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I am unworthy - how can I reply to you? I put my hand over my mouth,

5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I spoke once, but I have no answer - twice, but I will say no more.”

-
- 6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Then the LORD spoke to Job out of the storm:

- 7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Brace yourself like a man; I will question you, and you shall answer me.

- 8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Would you discredit my justice? Would you condemn me to justify yourself?

- 9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Do you have an arm like God's, and can your voice thunder like his?

- 10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Then adorn yourself with glory and splendor, and clothe yourself in honor and majesty.

- 11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Unleash the fury of your wrath, look at every proud man and bring him low,

- 12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look at every proud man and humble him, crush the wicked where they stand,

- 13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Bury them all in the dust together; shroud their faces in the grave.

- 14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Then I myself will admit to you that your own right hand can save you,

- 15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Look at the behemoth, which I made along with you and which feeds on grass like an ox,

- 16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What strength he has in his loins, what power in the muscles of his belly!

- 17 그것이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얹혀 있으며

His tail sways like a cedar; the sinews of his thighs are close-knit,

- 18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His bones are tubes of bronze, his limbs like rods of iron,

19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
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He ranks first among the works of God, yet his Maker can
approach him with his sword.

20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The hills bring him their produce, and all the wild animals
play nearby.

21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Under the lotus plants he lies, hidden among the reeds in the
marsh.

22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The lotuses conceal him in their shadow; the poplars by the
stream surround him.

23 강물이 소용돌이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When the river rages, he is not alarmed; he is secure, though
the Jordan should surge against his mouth.

24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
리로 그것의 코를 찢을 수 있겠느냐

Can anyone capture him by the eyes, or trap him and pierce
his nose?"

40:15 베헤못
하마로 볼 수 있음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하나님과 다투는 자 누구더냐?(1~14)

하나님만이 자신을 알아주신다는 믿음이 욥에게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는 욥 자신이 옳다는 자기정당화의 감정이 함께합니다. 이에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써 간구하다가도 불만을 쏟고, 원성을 내뿜곤 합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는 현실을 좀처럼 이겨 내기 어려웠나 봅니다. 그 모습을 헤아리시던 하나님이 욥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네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네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2절)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사람을 향하였던 욥의 거센 자기정당화, 자기옳음의 주장이 그 자체로서 실은 하나님에 맞서는 비난이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실 뿐, 피조물인 인간은 언제나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러자 욥이 서둘러 입을 가리며 대답합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5절) 그의 온전한 자기 이해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2. 하나님은 베풀어도 끌어안으십니다(15~24).

욥과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의 대화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었던 인간은 제각각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우열을 가리고, 힘을 겨루고, 서로가 서로에게 비난을 서슴없이 던지며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인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욥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나약한 행동이 사실상 하나님과 맞서는 행위와 동일하다고 일깨워 줍니다. 그러면서 ‘베풀’고, 고대 근동 시대에는 종종 괴물로도 여겨진 짐승이 언급되며 이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깜짝 놀랄 만한 선포가 내려집니다(15절).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부정당하는 이 땅의 자명한 현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서자 어지럽고 공허한 말로 가득 찬 세상이 드러나고 맙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스스로 생각해 온 베풀은 누구일까 조용히 돌아보며,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는 어리석은 피조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자기정당화의 주장은 스스로 주인이 되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맞서는 행위임을 가르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2. 베풀어도 지으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웃을 향하여 축복의 손길을 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길 기도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11:3~4,9~10 ³ 주님이 하신 일은 장엄하고 영광스러우며, 주님의 의로우심은 영원하다. ⁴ 그 하신 기이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셨으니,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다. ⁹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두렵다. ¹⁰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일이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1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아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When the queen of Sheba heard of Solomon's fame, she came to Jerusalem to test him with hard questions. Arriving with a very great caravan - with camels carrying spices, large quantities of gold, and precious stones - she came to Solomon and talked with him about all she had on her mind.

- 2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Solomon answered all her questions; nothing was too hard for him to explain to her.

- 3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When the queen of Sheba saw the wisdom of Solomon, as well as the palace he had built,

-
- 4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
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
의 전에 올라가는 충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the food on his table, the seating of his officials, the attending
servants in their robes, the cupbearers in their robes and the
burnt offerings he made at the temple of the LORD, she was
overwhelmed,

- 5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She said to the king, "The report I heard in my own country
about your achievements and your wisdom is true,

- 6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
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
보다 더하도다

But I did not believe what they said until I came and saw with
my own eyes. Indeed, not even half the greatness of your
wisdom was told me; you have far exceeded the report I heard.

- 7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
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How happy your men must be! How happy your officials, who
continually stand before you and hear your wisdom!

9:1 스바

아라비아 반도 남쪽 지
역에 위치한 스바는 여
러 향료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나무와 관
목이 자라나기로 유명
하다.

- 8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Praise be to the LORD your God, who has delighted in you and placed you on his throne as king to rule for the LORD your God. Because of the love of your God for Israel and his desire to uphold them forever, he has made you king over them, to maintain justice and righteousness.”

- 9 이에 그가 금 백이십 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Then she gave the king 120 talents of gold, large quantities of spices, and precious stones. There had never been such spices as those the queen of Sheba gave to King Solomon.

- 10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The men of Hiram and the men of Solomon brought gold from Ophir; they also brought algumwood and precious stones,

- 11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The king used the algumwood to make steps for the temple of the LORD and for the royal palace, and to make harps and lyres for the musicians. Nothing like them had ever been seen in Judah.)

12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답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King Solomon gave the queen of Sheba all she desired and asked for; he gave her more than she had brought to him. Then she left and returned with her retinue to her own country.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1~6).

‘솔로몬의 업적’이라는 부제가 달린 8장은 그의 시대에 일어난 활발한 건축 사업을 들려주며 통치권을 가늠하게 합니다. 이어지는 9장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2,300km 떨어진 스바에서 올라온 한 여왕을 비추며, 솔로몬이 받은 무수한 복 중에서도 ‘지혜’의 무게가 얼마나 대단하였는지를 알려 줍니다. 성경은 그녀가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찾아왔다고 밝히며 심중에 든 의심을 보여 줍니다(1절). 그녀가 던진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질문에 솔로몬이 ‘다’ 대답하였다고도 기록되고 있습니다(2절). 소문으로만 익히 들은 성전과 궁을 본 스바 여왕은 완전히 압도당하는 듯한 경험까지 하게 됩니다(4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다”(6절) 사실 그녀의 대답은 반신반의한 마음이기에는 하였지만 솔로몬을 찾은 발걸음 속에서 이미 정해진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2. 스바 여왕이 크게 감동합니다(7~12).

솔로몬의 대답과 더불어 통치권의 실체를 본 스바 여왕 마음 안에 놀랍게도 전과 후로도 그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체감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이 가진 특별한 지혜의 비결이 무엇이었을지 내심 궁금해하며 부러워하는 마음도 함께했으리라고 보여 집니다. 이 순간, 두 귀를 의심케 할 만한 반응이 들려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8절) 한때 두로 왕 히람이 보인 반응과도 너무나 흡사한 스바 여왕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의심하는 자의 마음을 한순간에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모든 일을 감찰하시며 우연한 일도 믿음의 차원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은 실로 복되고도 복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녀가 손을 내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드린 풍성한 예물과, 그런 그녀에게 정중히 예를 표하는 솔로몬의 지혜가 사뭇 아름답게 다가옵니다(9,12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스바 여왕을 지혜롭게 대하도록 하셨고, 의심하는 스바 여왕의 마음을 경배의 노래로 채우셨습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2. 솔로몬이 받은 지혜의 은사가 이방의 한 여왕을 크게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이고, 이것을 통하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돌아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33:11~12, 21 ¹¹ 주님의 모락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마음에 품으신 뜻은 대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¹²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한 나라 곧 주 하나님이 그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다. ²¹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에 우리 마음이 그분 때문에 기뻐합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13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육백육십육 달란트요

The weight of the gold that Solomon received yearly was 666 talents,

14 그 외에 또 무역상과客商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not including the revenues brought in by merchants and traders. Also all the kings of Arabia and the governors of the land brought gold and silver to Solomon.

15 솔로몬 왕이 쳐서 늘인 금으로 큰 방패 이백 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육백 세겔이며

King Solomon made two hundred large shields of hammered gold; six hundred bekas of hammered gold went into each shield.

16 또 쳐서 늘인 금으로 작은 방패 삼백 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삼백 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He also made three hundred small shields of hammered gold, with three hundred bekas of gold in each shield. The king put them in the Palace of the Forest of Lebanon.

17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Then the king made a great throne inlaid with ivory and overlaid with pure gold.

18 그 보좌에는 여섯 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The throne had six steps, and a footstool of gold was attached to it. On both sides of the seat were armrests, with a lion standing beside each of them.

19 또 열두 사자가 있어 그 여섯 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Twelve lions stood on the six steps, one at either end of each step. Nothing like it had ever been made for any other kingdom.

20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All King Solomon's goblets were gold, and all the household articles in the Palace of the Forest of Lebanon were pure gold. Nothing was made of silver, because silver was considered of little value in Solomon's day.

- 21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삼 년에 일 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옴이더라

The king had a fleet of trading ships manned by Hiram's men. Once every three years it returned, carrying gold, silver and ivory, and apes and baboons.

- 22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크지라

King Solomon was greater in riches and wisdom than all the other kings of the earth.

- 23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All the kings of the earth sought audience with Solomon to hear the wisdom God had put in his heart.

- 24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Year after year, everyone who came brought a gift - articles of silver and gold, and robes, weapons and spices, and horses and mules.

- 25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사천이요 마병은 만 이천 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Solomon had four thousand stalls for horses and chariots, and twelve thousand horses, which he kept in the chariot cities and also with him in Jerusalem.

26 솔로몬이 유브라테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He ruled over all the kings from the River to the land of the Philistines, as far as the border of Egypt.

27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이 하였더라

The king made silver as common in Jerusalem as stones, and cedar as plentiful as sycamore-fig trees in the foothills.

28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Solomon's horses were imported from Egypt and from all other countries.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솔로몬에게 엄청난 부가 허락됩니다(13~21).

이스라엘 왕을 시험하고자 이루어진 스바 여왕의 방문은 솔로몬의 지혜와 부와 존귀와 명예에 감탄하며, 사실상 그를 통치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어지는 본 단락에는 수차례 ‘금’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며 당시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평가할 만큼 실로 막강했던 솔로몬의 영향력을 암시합니다(20절). 그렇다면 금은 얼마나 흔한 것이었는지, 왕이 만든 수많은 금 방패는 레바논 나무 궁에 보관되며 전투용이 아닌 전시용으로 사용된 흔적까지 보입니다(15~16절). 왕이 만든 열두 개의 사자 형상은 높은 권위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지혜로운 왕의 치하 속에서 백성이 맞이하게 된 평화를 짐작하게도 합니다(17~19절). 나아가 ‘땅끝’을 상징하기도 하는 ‘다시스’로부터 삼 년마다 공수해 온 금과 은을 비롯한 무역품이 언급된 대목에서 우리는 약속대로 세상 끝까지 확장되어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엿보게 됩니다(21절).

2. 열방의 왕들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22~28).

‘땅끝’을 의미하는 ‘다시스’의 등장과 함께 본 단락은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스바 여왕은 물론이고 천하의 열왕에게서 인정받은 사실을 알려 줍니다. 심지어 그들은 의심하던 스바 여왕과는 달리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의 영광스런 얼굴 보기를 사모했을 정도입니다(23절). 이렇듯 스바 여왕과 다른 열왕의 반응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그 사이 더욱 막강해진 솔로몬의 위엄을 느끼게 하며, 이스라엘 왕에게 예물과 좋은 말들을 바치는 이방 왕들의 손길에서 과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왕이구나를 실감하게 만듭니다(24,28절). 실제로 그의 시대에 이스라엘 영토는 블레셋, 애굽 지경까지 미쳤습니다(26절). 솔로몬이 가진 셀 수 없을 정도의 부와 지혜를 찬찬히 음미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위대하고도 신실하심이 맞보아지는가 하면, 우리로 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찬미하게 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솔로몬의 부는 ‘하나님의 지혜’와 맞닿아 있습니다(9:22). 하나님으로 인하여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 때문에 영광을 받은 솔로몬의 왕위가 강조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가정,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이유를 묵상해 봅시다.
2. 천하의 열왕이 직접 방문하여 예물을 드릴 만큼 솔로몬의 영광은 대단하였지만 안타깝게도 12장에는 애굽의 침략을 받는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영원할 것 같은 부귀영화가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성경이 전하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67:1~7 ¹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어서, (셀라) ²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³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⁴주님께서 온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세상의 온 나라를 인도하시니, 온 나라가 기뻐하며, 큰소리로 외치면서 노래합니다. (셀라) ⁵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⁶이 땅이 오곡백과를 냈으니,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셨기 때문이다. ⁷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땅 끝까지 온 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29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잇도의 묵시 책 곧 잇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As for the other events of Solomon's reign, from beginning to end, are they not written in the records of Nathan the prophet, in the prophecy of Ahijah the Shilonite and in the visions of Iddo the seer concerning Jeroboam son of Nebat?

- 30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사십 년이라

Solomon reigned in Jerusalem over all Israel forty years.

- 31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Then he rested with his fathers and was buried in the city of David his father. And Rehoboam his son succeeded him as king.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솔로몬의 행적이 기록된 자료가 소개됩니다(29).

역대기 저자는 다윗의 행적을 기록한 역대상을 마무리하며 저술할 당시에 참고한 자료들을 소개했습니다(대상 29:29). 이와 동일하게 솔로몬의 죽음을 알리며 그에 관한 기록을 마무리하는 본 구절도 저자가 참고한 자료를 알려 줍니다. ‘선지자 나단의 글’,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 ‘선견자 잇도의 묵시 책’, 세 자료가 나름대로 솔로몬의 시종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나단은 다윗 곁에서 때로는 책망하며 바른 길로 안내한 하나님의 사자였다면, 아히야 선지자는 솔로몬에게 반역을 꾀하던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선포하여 준 사람입니다(왕상 11:26~39). 익명의 선지자로 간주되기도 하는 잇도는 이후 설명되는 바와 같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관한 기록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대하 12:15). 짝막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이라는 한 인물과 그의 생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전과 후의 시대, 그리고 함께한 인물들을 고려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2. 솔로몬이 다윗 성에 장사됩니다(30~31).

역대하는 솔로몬을 이상적인 인물로 제시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평행 본문과도 같은 열왕기상과 비교할 때, 동일한 사건임에도 서로 다른 관점에서 평가되는 부분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방 여인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인 사건이나, 왕성한 무역 활동 끝에 이방 신을 숭배하는 문화가 들어온 것에 관하여 역대하는 침묵하곤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역대기 저자의 저술 의도를 고민하게 되는데, 아마도 일차 독자였을 귀한 공동체에게 성전을 재건하는 비전을 제시하며 소망 잃은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주안점이었으리라고 해석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솔로몬처럼 그들도 순종을 다하라는 권면이 따르지만, 무엇보다 ‘다윗 성’에 장사되었다는 표현은 영광스런 일을 시작하고, 이루시며,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해지길 다짐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생애에 범죄한 사실을 부인할 순 없겠지만 그런 그도 사용하시며 형통과 부귀영화를 안겨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한 사람의 생애를 다양하게 살피기를 요청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웃을 향한 나의 시선은 어떠한지 돌아봅시다.
2. 솔로몬의 생애를 떠올리며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간다는 것의 의미를 묵상해 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12:1~4 ¹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²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으며, ³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다. ⁴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다. 그는 은혜로우며,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날마다 주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 봅니다.
가진 것 없는 빈손으로
어머니의 품에서 나온 우리이지만,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주리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며,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걸음이
때로는 무겁기도 했고 비틀거릴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이며

가야 할 곳을 아는, 참으로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복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거나 달라지지 않음을 믿으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날로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2023. 10. 10(화) 새벽기도회 중에서

<화란>을 통해 본 흑암 중에 깨닫게 되는 주님의 빛

글 황영미 (집사)



흑암 중의 주의 기적

사망의 줄이 나를 얹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시 18:4-6)

시편 기자는 흑암 중에 있는 것처럼 건지기 어려운 현실의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였다. 우리 모두가 항상 흑암 중에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살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흑암을 한 번이라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엄중한 삶의 명예가 우리를 누르고 사망의 줄이 얹어낸다고 느낄 때 기독교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흑암 중에서도 결코 절망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릴 수 있음이다.

나를 붉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므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시 18:19)

영화 <화란>의 상황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어네스트 헤밍웨이의 빼어난 단편 소설 '살인자들은 살인청부업자들의 세계에 입성하는 소년의 눈으로 본 살풍경한 세계가 하드보일드한 문체로 묘사된 작품이다. 그가 진입하게 되는 비정한 폭력 세계가 물고 오는 허무와 절망, 그것을 지켜보는 소년에게 주는 공포와 전율이 잘 표현돼 있어 1940~50년대 미국에서 여러 차례 영화화된 바 있다. 폭력성이 우리 삶에 얼마나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다.

영화 '화란'은 의붓아버지의 가정 폭력에 시달리며,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년 '연규'(홍사번)가 조직의 중간 보스 '치건'(송중기)을 만나 위태로운 세계에 함께하게 되며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린 누아르 드라마다. 76회 칸 국제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초청되어 상영되었다. 그동안 '신세계', '무뢰한', '아수라', '헌트' 등 강렬한 폭력의 세계를 그려온 사나이픽처스가 이번에는 신예 김창훈 감독의 시나리오를 선택했다. 이후 배우 송중기가 노캐런티로 참가 의지를 보이면서 제작에 박차가 가해졌다고 한다. 송중기 배우는 시나리오를 처음 보고 연규와 치건이 너무 붙어서 가슴이 아팠고, 이 어두운 시나리오는 투자받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꼭 영화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과감하게 노캐런티로 출연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의붓아버지가 주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집을 떠나 네덜란드(화란)로 이민 가고자 하는 고등학생 연규는 중국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이민에 필요한 돈을 악착같이 모으고자 한다. 연규가 살아가는 '화란'의 세계는 안으로는 가정 폭력이 정도를 넘어섰고, 바깥으로는 살인과 비리와 폭력이 난무한다. 연규는 가정 폭력이 일상이 된 의붓아버지에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적인 살부 충동에 시달리지만 그저 맛고 견디며 살아간다. 아버지의 친딸인 하얀(비비 김형서)의 만류에도 아버지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마음 둘 곳 없는 연규는 말로는 틱틱거리지만 속마음은 따뜻한 의붓동생인 하얀을 아끼고 의지한다.

폭력 조직의 중간 보스 치건은 자신의 과거 모습처럼 보이는 연규에게 끌림과 동시에 안쓰러움을 느끼게 된다. 연규가 처해진 경제적 문제와 난관을 알게 된 치건이 연규가 갚지 못할 삼백만 원이라는 돈을 던져주면서 둘 사이의 관계는 시작된다. 연규는 늘 술에 췌어 야구방망이든 뭐든 닥치는 대로 지독한 폭력을 가하는 아버지에게 벗어나 조직 세계에 입사하기로 고민 끝에 결심한다. 연규는 한 발 한 발 폭력의 정점에 다가가면서 조직의 인정을 받게 된다. 채권추심일을 하던 연규는 어느 날 동네에서 혼자 노는 어린 소년에게 자신의 어릴 적을 보는 것 같은 안쓰러움을 느끼게 되는데, 그의 아버지가 바로 연규가 몸담은 조직의 돈을 빌린 채 갚지 못하고 있는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다. 그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오토바이를 훔쳐야만 했던 연규는 어린 소년을 생각하며 훔친 오토바이를 그의 집 앞에 되돌려 주게 된다. 이 사건으로 치건과 상당한 갈등을 빚는다. 치건은 이 세계에서 무슨 오지랖 넓은 동정이나며 호되게 연규를 나무라며 조폭들의 독특한 방식으로 그에게 고통을 가한다. 치건이 자신도 연규에게 자행한 똑같은 고통을 자처하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그만큼 연규를 아낀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장면은 강한 인상을 남긴다. 홍사빈, 송중기, 김형서의 각자 개성 있는 연기가 드라마를 더욱 견고하게 만든다.

이 영화는 이야기 구조가 상당히 조직적이다. 치건이 연규에게 연민을 느끼고 아껴주는 메인 플롯은 연규가 장애인의 아들인 어린 소년에게 연민을 느끼는 서브 플롯을 만나 비정한 세계 안에 내재된 '정'이라는 주제를 강화시킨다. 우리나라에 뛰어난 누아르 영화가 많이 있지만, 조직 폭력이라는 비정한 세계에서 중간 보스와 막내 사이의 인간적인 정과 의리를 주제로 한 영화는 많지 않다. 이창동 감독의 데뷔작 '초록 물고기'에서 조폭 세계에서 인정받고 싶은 막둥이(한석규)의 운명적인 선택이 비장미를 주듯이 '화란'에서의 연규와 치건의 운명적인 선택은 가슴 깊은 울림을 남긴다.

영화의 제목 '화란'은 네덜란드의 한자 음차표기로 된 말이기도 하여, 연규가 떠나고 싶은 곳인 네덜란드를 의미한다. 한자의 문자적 의미로는 재앙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다. 영어 제목은



Hopeless인데 이 말처럼 희망 없는 세상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인물들의 모습은 가슴을 후벼파는 것 같은 안타까움을 남기지만, 이들에게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은 남겨져 있다.

흑암 속에 주님의 빛을 기대하는 크리스천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시 18:28)

기독교인들은 주님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고 내 흑암을 밝히실 그때까지 결코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모든 인간에게 다가오는 흑암에 좌절하지 말고 한 줄기 빛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한다. 영화 <화란>에서 연규와 하얀은 네덜란드에 가서 행복할 수 있을까. 그들이 선택한 네덜란드에 가더라도 여전히 그들의 자리는 어두울 것이다. 한국에 남아 있어도 흑암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연규와 치건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다면 그들의 현실은 것처럼 어둡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 곁에 실제로 이런 흑암 중에 머무는 자가 있다면 그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진정한 빛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 인도해야 될 것이다. 어둠이 짙을수록 그 빛의 힘은 더욱 강렬할 터이다.

- 이미지 출처 : 네이버 영화 <화란> 공식 스틸 이미지

- 이 글은 『일간스포츠』 2023년 5월 24일에 게재된 필자의 원고를 수정한 것입니다.

(<https://isplus.com/article/view/isp202305240113>)

돌이켜 보니

글 교회학교



은혜 전달자

글 영아부 김동희 (집사)

저는 교육 부서의 가장 막내 영아부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처음 왔을 때에는 아이들이 부모님과 헤어지기 싫어서 울며불며 들어오고 부모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 모습을 보며, '과연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맞는 예배일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생각을 사라지게 한 감사의 경험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영아부의 슬로건은 “태어나서 처음 드리는 예배”입니다. 벽찬 감격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아직 쿵쾅거립니다. **“첫 줄, “처음” 그 순간이 참 의미 있기에 누구나 그 순간을 기억하고, 애쓰고, 기념하는데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첫 예배에 동역자로 참여한다니 너무 설레고 감사함이 가득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돕는 자’로 쓰임 받는 것이 교사를 하면서 받는 가장 큰 은혜가 아닐까요?

주일 아침마다 아가들이 부모님과 함께 올 때 입구에서 맞이하다 보면 무탈하게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80% 이상의 아가들은 울면서 들어오다가 문을 통과하는 순간 아무렇지 않게 잘 적응합니다. 그래도 한참을 울며 안거 있거나, 엄마를 찾아 문쪽을 가리키며 나가자고 떼를 쓰기도 합니다. 잘하던 친구도 어떤 날은 떼를 쓰며 부모님과 떨어지기를 거부합니다. “우리 ㅇㅇ이 정말 잘하는데 오늘은 왜 그러지?”하면 부모님들이 귀찮해 주십니다. ‘동생이 태어나서 그래요,’ ‘오늘 오면서 자다가 왔어요,’ ‘지난주 감기가 걸려서 계속 집에 있었어요.’ ...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바로 안성맞춤의 멘트로 아가를 위로하며 더 안아 주시고, 더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더 신나게 놀아 주십니다.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저마다의 사정이 있는 태어난 지 13~30개월의 아가들에게 선생님의 안성맞춤 멘트는,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에게 주시는 수만 개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상, 수많은 기도 제물들이 이루어진 지도 모르고 원래 그랬다는 듯 지내고 있는 현실이야말로 값없이 받은 수많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도 우리 영아부 아가들의 예배 동역자로, 은혜 전달자로 잘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섬김의 의미

글 영아2부 권나현 (성도)

우연히 영아2부 봉사 제안을 받았었습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싹 성도였기에 교회 안에서 봉사와 섬김의 의미를 잘 몰랐고, 제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며칠의 망설임 끝에 4주 동안 영아2부 탐방 기간을 가졌습니다. 아가들이 부모님과 떨어져 독립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옆에서 돌봐 주는 역할의 시간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축복의 시간임을 느낍니다. 아가들의 순수함은 어느새 제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해 주었고, 이 시간을 통해 힐링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연히 다가온 제안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 보니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가들과 제가 신앙적으로 함께 성장해 가며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섬김의 마음을 주셔서 요즘은 아가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영아2부에서 사역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직 어려서 대화를 나눌 수는 없지만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만들기 시간을 가지며, 잠깐이라도 아가들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참 행복합니다. 또 스스로 기도하는 모습에 몽클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가들이 커가면서 이 시기를 함께한 저를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 점점 자라나고 깊어지는 신앙심에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좋은 말씀 전해 주시는 목사님과 밝은 에너지 부어 주시는 전도사님, 든든한 부장단분들, 애쓰시는 다른 선생님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새싹 성도인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따뜻하게 대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영아2부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 주실 놀라운 일들을 함께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유아부, You are Good

글 유아2부 우지훈 (전도사)

참 오랜만에 쓰는 간증문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기에 '어떤 내용을 쓸까요?'라고 여쭙며 유아2부와 함께한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떠오른 것은 유아2부에 부임하게 될 때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을 품고 유아2부에 부임했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로 키와 지혜가 쑥쑥 자랐습니다. 별로 오래 본 것 같지 않은데 어느새 말도 잘 하고, 혼자서 한글도 적적 쓰는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랑 못 떨어진다고 세상 서럽게 울던 아이가 지금은 집에 가기 전에 축복송을 하면 울동도 따라 합니다. 설교 때 그냥 앞을 보던 아이들이 예수님 캐릭터가 나오면 “예수님!” 하고 소리칩니다. 성경책 그림이 나오면 성경책이라고 말하고, 이제는 바울 캐릭터도 알아봅니다.

아이들이 사랑스러워져 갑니다. 저는 제가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길 원했습니다.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나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전달받은 사람은 저였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부끄럽게도 아이들에게 차고도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글을 쓰는 지금도 눈을 감으면, 유아부실 입구에서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는 아이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공과가 끝나고 자신이 만든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달려오는 아이들도 눈에 환합니다. 가서 인사하고 말을 걸면 아름답게 웃으며 인사해 주는 아이들의 얼굴이 아른거립니다. 아이들의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시기를 함께하며 그 과정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저로서는 참 감사할 뿐입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니 선생님들도 떠오릅니다. 부서 선생님들은 유아2부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자 함께함의 또 다른 축입니다. 각자의 삶과 생업과 사정이 있음에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시간을 드리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오면 그 누구보다 반갑게 아이들을 맞이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떠오릅니다. 정말로 보고 싶어서 너무 기쁘게 아이들과 인사하고 이야기하는 선생님들을 보면 은혜가 됩니다.

선생님들께는 항상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서툴고 부족해서, 더 좋은 방법과 방향이 있을 텐데 깨닫지 못해서 ... 어느 때는 너무 급하게 서두르고, 어느 때는 너무 늦어 적절한 타이밍을 맞추지 못해서 무심코 뻔은 말과 보인 행동에 받았을 상처에 죄송합니다. 뜻하지 않은 공백기 동안 자리를 지켜 주시고 버티 주심에, 유아2부 역사상 남자 전도사가 처음으로 왔음에도 지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유아2부와 함께한 시간보다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더 많기에 더욱더 풍성한 감사와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유치2부를 섬기며

글 유치2부 홍채경 (권사)

처음 교사대학을 신청할 때만 해도 교사를 염두에 두지는 않았습니니다. 다만 커리큘럼이 흥미로워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니다. 교회학교 선생님이면 성경에 대한 깊이도 상당해야 하고 믿음도 훌륭해야만 할 것 같은 두려움에 스스로 자격이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정 중 실습을 해야 했고 막연히 아이들이 예뻐 유치2부를 선택하게 되었는데, 돌이켜 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이었음을 느낍니다. 그 후 지금까지 4년여를 유치2부 교사로 섬기면서 한 참 부족한 제가 주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서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을 만나는 것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 하겠지만, 한 주 한 주 만나다 보면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처음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대하던 아이들이 금세 마음을 열고 담임 선생님을 무한 신뢰하는 눈빛으로 의지하며 다가오는 모습에 교사들의 마음도 활짝 열리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하고 해맑게 웃으며 달려와 안기는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예쁘고 귀한지요! 교회 오는 길이 즐겁고 믿음 생활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 그 모습이 참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의심 없이 믿습니니다. 항상 의심하고 투정하는 기성세대들과 달리 예배 시간에 듣는 하나님 이야기를 의심 없이 믿습니니다. 찬양을 할 때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니다. 친구 한 명은 찬양할 때마다 목이 설 정도로 큰 소리를 내는데 하나님이 잘 들으시도록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순수하고 예쁜 모습인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모습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니다. 성경 구절이 떠오릅니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 18:3)

매주 부족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셨음에 또한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니다. 상황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매주 가장 좋은 조건에서 아이들과 귀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목사님부터 부장단, 선생님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아이들의 믿음이 바르게 뿌리내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기에 이 사역이 더욱 소중합니다.** 교회학교를 통해 자라난 대학부 학생들이 교사로 다시 헌신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이 시간이 한 명 한 명 믿음 생활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복된 섬김

글 유아유치3부 김복연 (성도)

유아유치3부를 7년째 섬기며 매주 귀여운 아이들의 찬양 인도를 맡고 있는 김복연입니다. 아이들을 무척 예뻐하고 잘 돌보는 저의 세 딸들 한나, 한별, 한솔이와 함께하다가 현재는 고3인 한나를 제외하고 저와 둘째 한별, 셋째 한솔, 세 모녀가 매주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아이들의 해맑고 순수한 에너지를 충전해 가고 있습니다.

유아유치3부는 4세부터 7세의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로 찬양과 말씀, 공과(만들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한 주 한 주 커 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 볼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의미 있고 복됩니다. 기저귀를 차고 뒹뒹뒹 오기 시작해서 이제는 기저귀를 떼고 당당히 아기 화장실을 이용하는 아이, 글씨를 배워 가며 말씀을 한 글자씩 읽어 가며 오타를 찾아내는 아이, 엄마랑 헤어지기 싫어 울고불고 떼를 쓰다가 이제는 스스로 신발을 벗고 씩씩하게 들어오는 아이,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4살 터울이 함께하니까 남매와 자매와 형제가 서로를 챙기는 아이들, 놀랍고 신기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 주는 이 모든 과정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무엇보다도 바랄 수 없는 은혜임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7년 동안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여러 번 시험에 빠지고, 고난에 힘들었습니다. 특송 때 울고 보채는 지각한 쌍둥이 자녀를 앞에 세우려는 어머니에게 뒤에 서면 어땠겠냐는 제 말에 매장에서 매니저 불러 클레임 걸 듯이 “저 선생님 뭐냐고” 따져 묻고, 담임 선생님은 어머니 말만 듣고 제 의도를 왜곡해서 매우 난처했던 상황, 적응 기간이 길어 일 년 내내 예배 시간에 안 들어오겠다며 대자로 뺨어 우는 아이, 예배 마치고 말없이 아이만 데리고 가는 엄마와 대화를 시도하려다 수차례 바람맞은 일 …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는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유아3부 동료 선생님들을 통해서 제 마음을 회유하셨습니다. 때로는 친정엄마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언니처럼, 가족 같은 분위기의 선생님들이 제 손을 잡아 주시고 다독여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극복하고 위로받고 은혜를 받으며 지금까지 섬길 수 있었습니다. 최근 일 년 단위로 친정아버지와 시아버지가 소천하셔서 경황이 없을 때도 곁에서 함께 기도해 주신 선생님들의 힘! 우리 유아유치3부 공동체의 힘을 절대 잊지 않고 보답하며 봉사하리라 다짐했습니다. 7년을 돌아보고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목사님,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선생님이로 알고 매주 반짝이는 얼굴로 달려오는 아이들과 보내 주신 어머니들, 글을 읽어 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저를 복된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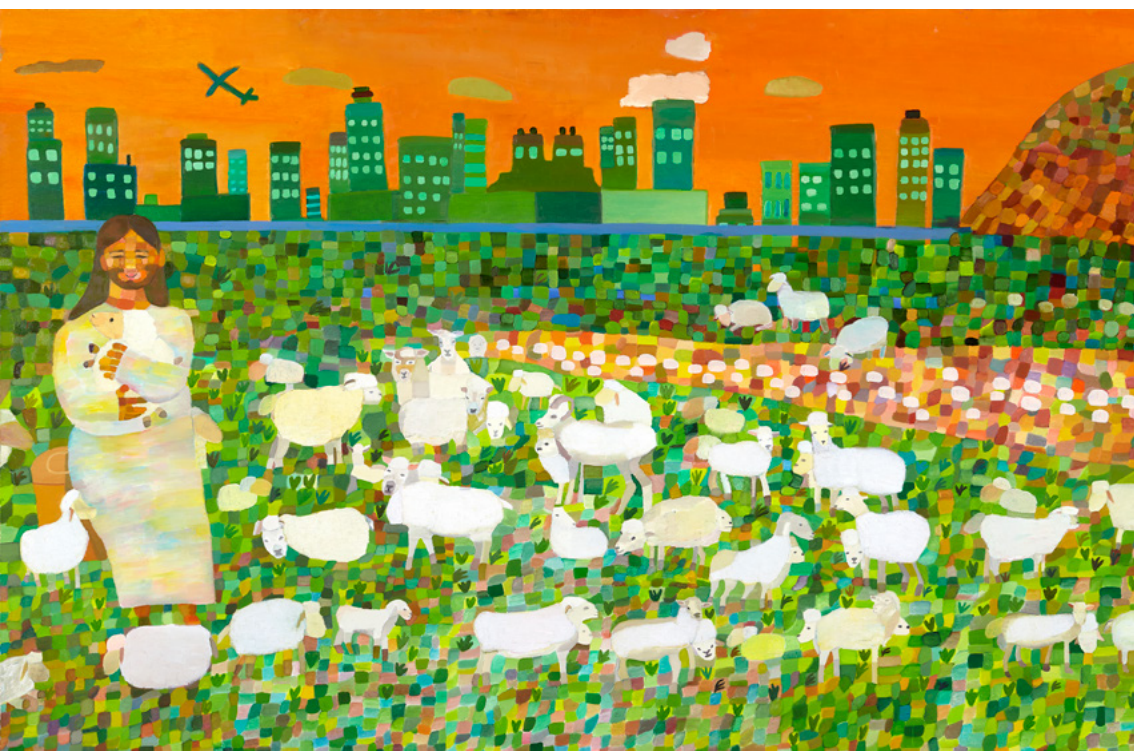
예수님, 지금 여기에

글 · 그림 이호연 (성도)

시편 23편

¹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²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³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⁵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⁶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227 X 162 cm
Oil on canvas
2016



현화이야기 22

11월, 우리의 고백



10월 1일 창립기념주일

글 허춘남 (권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28

하나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창립 46주년 기념주일,

성전 꽃장식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10월 8일 주일

글 황주은 (권사)

뜨거운 햇살과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어느덧 가을을 맞이합니다.

저희들의 삶도
때론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꼭 붙잡고,
주님이 기뻐하실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길 기도하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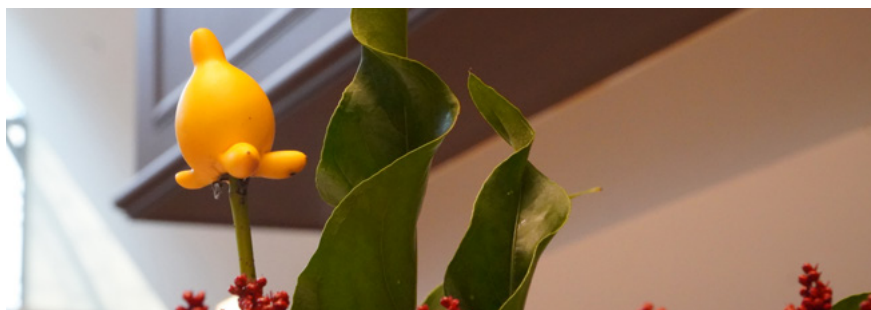
주님 전에 아름다운 가을을 드립니다.



10월 15일 주일

글 박미아 (권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 50:23



부모는 자녀 인생의 정비사가 아니라 '정원사'입니다!

글 신형섭 (목사,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 교수)



가정예배, 하나님께서 자녀의 철을 따라 열매 맺음을 목도하는 현장

지난호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부모란,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로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에 허락된 신앙의 정원사임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리고 매주 철마다 자녀의 인생에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나도록 돕는 신앙의 정원사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인 우리에게는 자녀의 인생 계절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돕는 지혜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너희 사랑 위에 지식과 총명을 더하라”고 말씀하신 빌립보서 말씀을 기억하며, 자녀의 연령에 따라 요청되는 가정예배의 지혜를 함께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동 전기 자녀와 드리는 가정예배 : 성경 메가스토리를 마음에 새겨넣는 현장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학령기가 되면 아이들은 사회의 인습과 규범을 통하여 사회적 기술을 배우고, 장기 기억이 발달하며, 근면성을 통하여 성실히 행한 일에 대한 성취감을 통해 성장하게 됩니다.¹⁾ 이 시기의 자녀들은 신앙발달적으로 신화적·문자적 세계관으로 믿음을 받아들입니다. 직관적 사고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특징을 갖는 이 시기의 아이들은 부모님과 친밀한 관계가 전제된다면, 그 이야기가 신화처럼 들릴지라도 부모님을 통해 듣는 성경 이야기를 믿음으로 강력히 받아들여게 됩니다.

그러기에 학령 전기 자녀들과의 가정예배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에 평생 남을 의미 있는 성경 메가스토리를 들려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신앙 성장의 기둥이 됩니다. 또한, 성취감으로 학습의 기쁨을 느끼며 더욱 근면히 수행하는 특징을 보여 주는 시기이기에,²⁾ 아이들이 들으면 대답할 만한 질문과 감당할 만한 읽기 분량의 과제 혹은 묵상노트 등을 매일 혹은 매주 단위로 부여함은 가정예배의 중요한 팁이 됩니다. 여기서 아이들은 성취감을 느끼고 성경 이야기를 근면히 읽어 갈 힘과 동기 부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적절한 보상은 효과적인 신앙 교육의 방법입니다.

아동 후기 자녀와 드리는 가정예배: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재해석하는 여정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에 해당하는 자녀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직관적 사

1) Gibbs, Moral Development and Reality, 90; Erikson, Childhood and Society, 258.

2) 양금희, 『기독교 유아아동교육』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92.

3) Carol Garhart Mooney, Theories of Childhood: An Introduction to Dewey, Montessori, Erikson, Piaget & Vygotsky (St. Paul: Redleaf Press, 2000), 81.

고에서 논리적·추상적 사고로 옮겨지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³⁾ 그러기에 이 시기에 효과적인 가정예배는 성경 이야기 자체를 읽어 주고 기억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그 이야기가 자녀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기독교적 세계관을 친절하게 알려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과학이라는 논리적인 세계관으로 세상과 성경을 보는 경향성이 강합니다. 자신들의 이성에게 맞게 설명되면 진리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진리라고 오해하기 쉬운 때를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를 보내는 자녀들과 가정예배를 드리는 부모는, 세상은 과학의 사실과 비과학의 거짓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과학이라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의 원리와 초과학이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비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부모 세대로 하여금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고백하여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가정예배를 통하여 부모님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가슴 뛰는 간증 사건들, 신앙의 놀라운 체험들이 지속적으로 나누어질 때, 부모의 이야기가 자녀들의 것으로 수용되고 해석되는 신앙 성장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자녀와 함께 드리는 가정예배 : 소명과 비전을 함께 찾아가는 자리

청소년기로 들어선 자녀는 내가 누구이며, 세상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세상이 궁금하던 자녀들이 청소년이 되면서부터는 현재와 미래의 자아 정체성을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청소년이 겪는 현실은 성적, 외모, 돈, 스펙, 집안 배경 등과 같은 외적 요소들이 보장되지 않으면 인생은 이미 등급이 정해진 것처럼 오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자녀들은 자신의 삶이 채단되어질 때 저항하고, 때로는 좌절과 분노, 급격한 감정 변화와 돌발 행동 등의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그러므로 청소년기 자녀와 함께 드리는 가정예배는 그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존귀하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알려 주며, 소명과 비전에 대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지속적으로 찾아가며 발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거나 자녀의 결핍된 모습을 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녀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언약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기 자녀들에게는 자신의 말을 들어줄 어른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신뢰하고 따라갈 만한 공동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한 자녀들에게 가정예배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보여 주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일관된 사랑과 은혜를 듣는 자리가 될 때, 진정한 안전을 누리며 신앙 성장의 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정예배 안에서 자녀들의 고민과 기도 제목이 안전하게 나누어질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고, 말씀을 따라 부모가 자녀를 진심으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시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부모가 청소년기 시절에 경험한 신앙 간증과 은혜 체험에 대한 나눔은 효과적인 가정예배 실천의 팁이 될 수 있습니다.



Story | 의료선교부가 전하는 돌봄의 창⁸

질책을 은혜로 바꿔 주신 하나님

글 이종유 (집사)



저의 삶을 감싸시고 지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갚을 길 없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로서 수년 전 한 의원에 근무할 때의 일입니다. 국가에서 무료로 시행하는 영유아 건강 검진을 받게 하려고 6개월 된 남자 영아를 데리고 아이 아버님과 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검진 결과, 아이는 1가지 이상을 제외하고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머리의 정중앙 정수리 부위에서 양미간 사이에 있는 대천문(또는 앞숟구멍)이 잘 안 만져지고, 마치 마룻바닥처럼 딱딱하게 만져진 것입니다.

정상 발달의 경우 책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기술되지만, 보통 1세~1세 반 또는 14~18개월 사이에 대천문(또는 앞숟구멍)이 닫히게 됩니다. 이 아이의 경우 만 6개월경에는 대천문은 마름모꼴로 열려 있어 내부 조직이 부드럽게 만져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유사한 사례로 약 6개월 전후 영아들이 대천문이 잘 안 만져지거나 딱딱하게 만져지는 경우가 있어, 큰 병원의 신경외과 등에 진료 의뢰한 적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작은 이상들이라도 발견되어 의뢰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였지만, 한 번은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 후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고 보호자께서 쓸데없이 시간과 검사료를 낭비하였다고 질책하시는 전화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이 떠올라 망설이며 고민하다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어 큰 병원의 신경외과로 전원하였습니다. 아이는 신경외과에서 뇌전산화단층 촬영 등 몇 가지 정밀 검사를 받았고, **두개골 조기 융합**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두개골 조기 융합(Craniosynostosis)

두개골 봉합의 조기 융합으로 두개골의 기형 및 눈과 뇌의 손상 초래

(1) 원인

- a. 불명
- b. 10~20%는 선천성
- c. 구루병(rickets), 저포스파테이스증(hypophosphatasia), 특발성 고칼슘혈증, 수두증의 단락 수술 후

(2) 증상

- a. 주상두(scaphocephaly) : 시상 봉합의 조기 융합 - 머리가 앞뒤로 길어진다.
- b. 단두증(brachycephaly) : 관상 봉합의 조기 융합 - 머리가 좌우로 길어진다.
- c. 첨두증(oxycephaly), 탑상두(acrocephaly) : 모든 봉합의 조기 융합 - 얼굴과 안와의 기형(안구 돌출, 실명)

- (3) 치료 : 생후 6개월 동안 뇌가 빨리 크기 때문에 출생 후 선상 두개골 절제술(linear craniectomy) 시행



진단 결과, 저에게 진료를 받으러 온 그 남아는 대천문이 닫힌 지 약 1개월 정도 지난 상태였습니다. 수술로 바로 교정해 주지 않을 경우 뇌가 자라날 공간이 부족하여 영구적으로 지능 저하 및 머리 모양이 비정상적으로 이상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해당 3차 병원 신경외과에서 신속히 교정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이 잘 되어 경미한 빈혈로 소아용 철분 제재를 복용하는 것 외에, 아이의 모든 신체 및 정신 발달은 정상적으로 잘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조금만 늦게 발견되었더라면 지능 저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다는 신경외과 담당 교수님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아이의 어머님, 아버님은 정말 고맙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신뢰하시게 되어 어머니가 인천의 한 어린이집 원장님이 되셔서 이사를 가시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멀리서 아이들을 데리고 종종 외래에 오셔서 진료도 하시고 상담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 영아의 문제점을 놓치지 않고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14:6)

부족하지만 남은 삶을 예수님 따라가는 삶으로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10월 첫째 주

소망가족 합동추모예배

소망교회는 매년 추석 명절을 한 주 앞둔 목요일 합동추모예배를 드리고 있다. 올해도 소망가족 합동추모예배가 9월 21일 오전 11시 소망수양관에서 열렸다. 수양관에 도착한 성도들은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며 가장 먼저 소망 동산에 올랐다. 올해는 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 실시간으로 소망 동산의 모습을 담아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나온 성도들의 발길을 현장 중계로 담아 송출했다. 경조부 권정혁 담임목사가 인도한 예배에서 서병석 부장 장로가 소망교회의 아름다운 장례 문화가 후대까지 이어지기를 기도했다. 여전도회 찬양대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 후 김정진 담임목사가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은 사람은 모두 복이 있다'는 부활 소망을 힘있게 선포했다. 2부에는 베다니찬양대가 준비한 추모음악회가 이어져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전했다. 곡을 통해 죽음과 부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주님을 찬송하는 곳임을 강조했다. 소망 동산을 찾은 성도들은 가족들을 향한 그리움과 아쉬움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다고 전했다. 부활 소망에 대한 약속이 선포된 이날, 유가족들의 가슴속에 부활의 생명,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 임했다.



10월 첫째 주

이웃초청 소망 야외음악회



성큼 다가온 가을의 정취와 음악의 선율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음악회가 소망교회 앞마당에서 펼쳐졌다. 9월 16일 저녁 7시 제직회 문화선교부 주최로 소망교회 본당 앞마당에서 ‘이웃초청 소망 야외음악회’가 열렸다. 공연 시작 전 음악회 참석자들은 푸드트럭 존에서 다양한 음료를 즐길 수 있었다. 문화선교부 담당 이우성 목사는 음악회 참석자와 공연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주변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했다.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전찬희 집사가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으로 가을밤의 추억을 만들어 드리고자 마련된 행사라며, 환영 인사를 했다. 한춘복 지회자와 김혜정 악장 외 24명의 연주자로 구성된 소망가든 오케스트라가 ‘참 아름다워라’ 개회 연주로 본격적인 음악 축제를 시작했다. 소망가든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소프라노 오현미, 테너 신승민, 이모세, 베이스 노현준, 싱어송 라이터 정승수의 독창과 중창이 무대를 화려하게 꾸몄다. 오케스트라 대원들과 가수들은 아름다운 선율과 화음으로 ‘옛동산에 올라’, ‘고향의 봄’, ‘You raise me up’ 등의 곡을 선사했다. 깊어 가는 가을밤의 정취가 소망 성도와 이웃들의 가슴 깊이 스며든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2023 | 11

발행인 김경진

편집위원 윤환

유지미

김영규

홍성민

이순기

편집주간 류현조

편집장 하수경

편집팀 홍성찬

홍희선

디지털콘텐츠 조성실

디자인 워크워크

인쇄 금호인쇄

발행일 2023년 10월 28일(통권 143호)

발행처 소망교회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36길 55(구 신사동 624)

문의 02-512-9191

알립니다

소망 성도님들의 이야기(말씀을 통해 받았던 은혜, 신앙간증)를 보내 주세요.

보내실 곳 : somangtpd@naver.com

소망예배안내

예배구분	시간	장소
새벽기도회	매일(월~토) 오전 5:30	본당 / 본당 지하1층
주일 예배	주일 1부 오전 7:30	본당 / 본당 지하 1층
	주일 2부 오전 9:30	본당 / 본당 지하 1,2층 / 가족예배실
	주일 3부 오전 11:30	본당 / 본당 지하 1,2층 / 선교관 2층 / 가족예배실
	주일 4부 오후 1:30	본당 / 본당 지하 1층 / 가족예배실
	주일 5부 오후 3:30	본당 / 본당 지하 1층 / 가족예배실
찬양 예배	주일 오후 7:30	본당 / 본당 지하 1층
삼일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본당 / 본당 지하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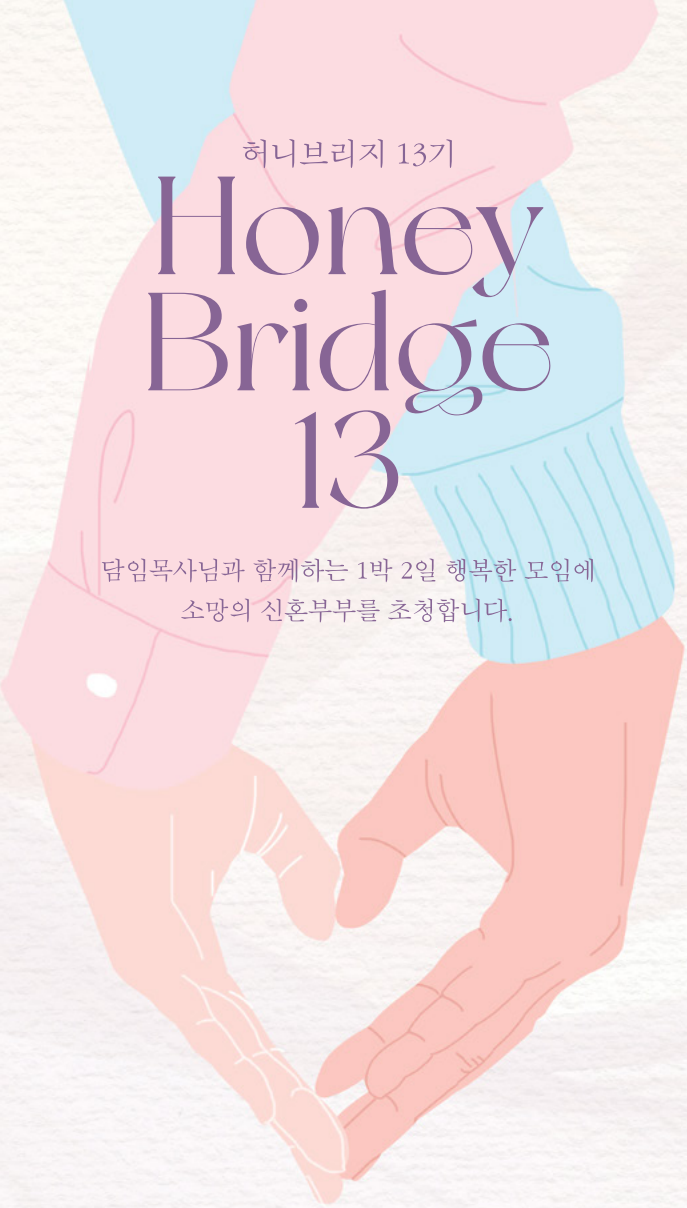
방송시간안내

매체	구분	제목	요일	시간
라디오	서울 극동방송	생명은 빛으로	토요일	오전 9:00~9:30
	제주 극동방송	새벽강단	월~토	오전 4:30~5:00
	CBS 기독교 방송	성서 강해	토요일	오전 5:30~5:55
	CBS 기독교 경남 방송	성서 강해	토요일	오전 5:30~5:55
	CBS 기독교 대구 방송	소망의 소리	주일	오전 11:05~11:30
	CBS 기독교 부산 방송	라디오 교회	주일	오전 10:30~11:00
	CBS 기독교 청주 방송	성서 강해	토요일	오전 5:30~5:55
	CBS 기독교 포항 방송	이 기쁜 소식을	화요일	오후 9:05~9:29
TV	CBS 기독교 방송	소망의 말씀	주일	오전 7:50~8:30 (본방)
			수요일	오전 1:00~1:40 (재방)
	CTS 기독교 TV	생명의 말씀	주일	오후 1:30~2:00 (본방)
			월요일	오전 6:30~7:00 (재방)
	CGN TV	소망교회 주일예배	월요일	오후 9:00~10:00 (본방)
	Good TV	말씀의 샘터	월요일	오후 10:40 (본방)

모바일 헌금 안내

쉽고 안전한 헌금 생활을 위하여 모바일 헌금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안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허니브리지 13기

Honey Bridge 13

담임목사님과 함께하는 1박 2일 행복한 모임에
소망의 신혼부부를 초청합니다.

2023. 11. 10 Fri - 11 Sat

더스테이힐링파크 (가평)

강사 : 김경진 담임목사 및 외부 강사

허니브리지는 신혼부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영위하며
건강한 가정을 세우도록 돕는 가교로서의 모임입니다.